

II. 한민족의 기원

1. 고고학적으로 본 문화계통
2. 민족학적으로 본 문화계통
3. 문헌에 보이는 한민족문화의 원류

Ⅱ. 한민족의 기원

1. 고고학적으로 본 문화계통

—문화계통의 다원론적 입장—

1) 연구방법론 선행조건

고고학상으로 본 한국 문화계통은 매우 복잡하고 파악하기 힘들다. 그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여건과도 관계가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고고학 조사가 많이 행해져 유물을 통한 비교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그나마 과거에 비해 발굴된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의 증가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고무적이다. 한국 문화계통의 연구에는 몇 가지 연구 방법론적인 선행조건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알려진 영세한 자료 위에서의 가설을 세우기가 가능해 질 것이다.

- ① 한국의 문화계통의 연구는 단선적·단원적(unilinear)이기보다는 복잡적·多元的(multilinear)이어야 한다.
- ② 서구식(유럽식) 고고학의 기준을 따라 기술과 경제행위로 구분한 편년안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와 철기시대는 각 시대별로 또 그에 속하는 각기 세분된 시기에 따라 문화적 계통도 달라지고, 여러 갈래가 될 수 있다.
- ③ 고고학의 기본적인 단위(units)인 components(the manifestation of a given archaeological "focus" at a specific site)와 phase(문화의 期)를 중심으로 하는 通時(tradition)와 空時(horizon)적 개념을 통한 시간과 공간의 결합모형을 생각하여¹⁾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artefacts(유물 : 개인+속

1) Gordon R. Willey and Philip Phillips, 1975, *Method and Theory in American Archaeology*(7th Impression)(Chicago & London ;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5), p. 41.

崔夢龍, 《고고학에의 접근》(신서원, 1990), 71쪽.

성) - subassemblages(아유물복합체 : 집단+유물) - assemblages(유물복합체 : 공동체+아유물복합체) - archaeological cultures(고고학 문화 : 사회+유물복합체)의 순으로 형성되는 고고학 문화단계의 설정²⁾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phase나 고고학적 문화를 바탕으로 horizon(a primarily spatial continuity represented by cultural traits and assemblages)과 tradition(a primarily temporal continuity represented by persistent configurations in single technologies or other systems of related forms)³⁾의 공간적 문화권이나 지역적 편년의 설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시간과 공간이 합쳐지면(spatial-temporal integration) 구라파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와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북·중·남미의 Lithic(석기), Archaic(고기), Formative(형성기), Classic(고전기), Postclassic(후기 고전기)과 같은 cultural stages(시대, 문화단계)와 같은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다.

- ④ 세계고고학 연구이론과 방법 중 진화론 다음에 오는 문화의 전파론(diffusionism)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문화의 자생론(indigenous origin theory)도 항상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⑤ 그리고 문화중심지(core)와 변방(marginal)의 구분과 아울러 중심지에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시기적으로 늦은(belated)점도 항상 고려해 두어야 할 점이다.

이러한 몇 가지의 생각 위에서 한국의 문화계통을 구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 전기(기원전 300~기원전 1년)와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위만조선 : 기원전 194~기원전 108년)에 이르기까지 소략하나마 나열해 보고자 한다.

2) 편 년

앞으로 21세기를 맞아 한국 선사시대에 있어 설정될 시기구분은 다음과 같이 되겠다.⁴⁾

2) James Deetz, *Invitation to Archaeology*(New York : The Natural History Press, 1967), pp. 106~107.

3) 위의 책(주 1) 33·37쪽.

4) 최몽룡, <21세기의 한국고고학>(《한국사론》 30, 국사편찬위원회, 2000).

———, <21세기 한국고고학의 새로운 조류와 전망>(한국상고사학회 27회 학술발표회 기조강연, 2002. 4. 26).

구석기시대(구석기시대를 전기·중기·후기로 나누나 북한과 남한의 학자들간에 전기 구석기시대의 상한에 대하여는 이견이 많다. 전기 구석기시대에 속하는 유적들은 평양 상원 검은모루봉, 경기도 연천 전곡리와 충북 단양 금굴 등이며 그 상한은 약 70~20만 년 전으로 진폭이 크다.⁵⁾)

신석기시대(기원전 8000~10000년~기원전 2000~1500년)

청동기시대(기원전 1500년~기원전 300년 : 남한도 북한과 같이 상한이 기원전 1500년으로 올라감)

철기시대 전기(기원전 300년~기원전 1년) : 종래의 초기 철기시대

철기시대 후기(서기 1년~서기 300년) : 삼국시대전기(종래의 원삼국시대/삼한시대)

이와 같은 고고학 편년은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 북한학자들의 연구 업적을 참조해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3) 문화계통

(1) 구석기시대

종전까지 남한의 구석기시대의 상한은 충북 단양 도담리 금굴유적으로 현재 적어도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평양 상원군 흑우리 검은모루 동굴의 경우 100만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⁶⁾ 이들 유적들은 구석기시대 중 전기에 속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정확한 유물조합상과 연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를 입증할 만한 지질학과 고생물학적 증거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유적 출토 동물 화석군과 석기를 포함하는 유물들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 다시 말해 중국이나 시베리아 지역과의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기원이나 문화의 시작이 정확

5) 배기동, <구석기시대>(《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97), 31쪽.

6) 검은모루동굴 유적은 100만 년 전 이전으로 보고 있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고고학연구소, 《조선전사》 1. 원시편(평양, 1991), 24쪽). 그러나 이들 유적들에 대한 견해는 박영철, <한국의 구석기문화>(《한국고고학보》 28, 1992), 33~36·63~66쪽 참조.

히 어디에서부터 出自했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인 20만 년 전 전후가 되면 우리 민족과 문화의 기원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서 나오는 우리의 역석기 문화 전통을 예니세이강 상류의 카멘니로그와 라즈로그 II(이 유적은 민텔~리스 간빙기층으로 20~4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유적, 몽고령의 고르노 알타이지역 사간 아부이 동굴, 내몽고자치구 大窯읍 투얼산 사도구 유적, 요녕성 榮口 牛山 유적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구석기시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베리아의 예니세이강 상류-몽고(알타이)-내몽고-요녕(만주)-연천 전곡리로 이어지는 문화 루트도 현재 새로운 가설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후기 구석기시대가 되면 전국 곳곳에 유적이 분포한다. 이는 한반도 전역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제까지 구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전혀 보고된 바 없는 인천광역시에서도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보고되고 있다. 강화도 내가면 오상리 소재 지석묘(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6호) 옆에서 석영제 팔매돌(bola)이,⁷⁾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문학산 청동기시대 溝狀遺構 옆에서 석영제 망치돌과 兩刃石器(chopping tool),⁸⁾ 그리고 화성군 서신면 장외리와 향남면 동오리에서 석영제 다면석기와 찍개⁹⁾가 나와 적어도 경기도 전역에 구석기시대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당시 급격한 인구의 증가나 생활적소(niche·適所)에 따른 빈번한 이동을 들 수 있는데 이 점은 앞으로 전문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 문화계통의 자생성이 적어도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있어온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 전라북도 용담댐 내 진안 진그늘은 전라북도 금강 상류에서 최초로 발굴된 2만 년 전후의 후기 구석기시대 대규모 살림터 유적으로 특히 스페

7) 선문대학교 역사학과 발굴조사단, <강화 내가면 오상리 고인돌무덤 발굴조사 현장 설명회자료>(2000년 5월 20일), 5쪽.

8) 인하대학교 박물관, <인천 문학경기장내 청동기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2000년 7월 4일), 사진 11에는 석영제 망치돌이, 그리고 현장 전시품 중에 석영제 양면석기가 보이고 있다.

9) 경기도박물관,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 I - 화성군해안지역-》(1999), 63·193쪽.

찌르개(stemmed biface points)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¹⁰⁾ 이 유물은 금강의 중·하류 쪽의 대전 용호동, 공주 석장리, 남한강변의 단양 수양개,¹¹⁾ 섬진강 유역의 순천 월평리, 낙동강 유역의 밀양 고례리 등 거의 남한 전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일본에서는 北海道 白湧-胎部臺 등지¹²⁾에서 발견 보고사례가 많아 우리 구석기시대와의 편년관계 설정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의 구석기시대는 先土器시대로 불리우며 ① 거친석기 단계(Crude Lithic Specimens), ② 양끝과 옆면을 떼어내 격지를 만드는 단계(End and Side Blow Flake Technique), ③ 밀개, 잎형찌르개, 새기개, 칼 등이 포함되는 세형돌날 단계(Microblade), ④ 세형돌날, 양면가공 찌르개, 세석기, 세형몸돌, 새기개와 토기 등이 포함되는 단계(Pottery, Microblades)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스페찌르개는 네 번째의 단계로 시기상 기원전 13000~9000년 전경에 해당한다. 우리의 것도 이곳 일본 선토기문화의 단계와 편년에 맞추어 정확한 문화내용과 시기가 파악되어야 한다.¹³⁾

다음의 중석기시대는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 시대(transitional period)로 이 시기는 기원전 8300년경 빙하의 후퇴로 나타나는 새로운 환경에도 여전히 구석기시대의 수렵과 채집의 생활을 영위하고 도구로서 세석기가 많이 나타나며, 신석기시대의 농경과 사육의 점진적인 보급으로 끝난다. 지속되는 기간은 각 지방마다 달라 빙하기와 별 관련이 없던 근동지방의 경우 갱신세(홍적세)가 끝나자마자 농경이 시작되었으며 영국의 경우 기원전 3000년경까지도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유럽

10) 조선대학교 박물관, 《진안 진그늘 구석기시대 유적》(용담댐 수물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 설명회 자료, 2000년 10월 28일).

11) Lee, Yong-jo, Woo, Jong-yoon & Kong, Su-jin, "New Result from Tanged Tool of the Suyanggae Site in Korea"(*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 Paleogeography of the Stone Age*. Krasnoyarsk, Russia, 2000. 7. pp. 25~31).

12) C. Melvin Aikens & Takayasu Higuchi, 《Prehistory of Japan》(Academy Press, 1982), pp. 78~85. 그러나 최근 후지무라신이치(藤村新一)의 北海島の總進不動坂(소도후도자카)을 포함한 60~70만 년 전까지 올라간다는 전기와 중기구석기시대유적의 조작에 따라 전기와 중기구석기시대인 거친석기 관계는 일본구석기시대의 상한이 35000년이라는 1983년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13) 최몽룡, 《홀과 인류》(주류성, 2000), 174쪽.

의 편년체계를 받아들여 중석기시대의 존재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게 되었으며¹⁴⁾ 통영 상노대도, 공주 석장리, 거창 임불리, 홍천 화화계리 등의 유적이 증가함에 따라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도 주로 그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게 되었다.¹⁵⁾ 북한에서도 종래 후기 구석기시대의 늦은 시기로 보던 평양시 승호구역 만달리와 옹기 부포리 유적도 중석기시대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중석기시대의 개념이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하나의 시대로 보기보다는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 이유는 전형적인 유럽식 석기 문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극동지역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하바로프스크시 근처 아무르강 유역의 오시포프카 문화의 토기와 비교될 수 있는 토기가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에서 나오고 있는 점도 들 수 있다. 오시포프카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은 아무르강 사카치알리안(사카치알리안이란 명칭도 맞으나 현재 사카치알리안으로 통일하기로 하였음) 근처에 있으며, 이들은 갱신세 최말기에 속한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여기에 비해 근동지방의 경우 토기의 출현은 간즈다레 유적이 처음으로 그 연대도 기원전 7000년경에 해당한다.¹⁶⁾ 만약에 극동지방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오시포프카 문화의 설정을 보류한다 해도 지금부터 7~8000년 전 극동지역 신석기~청동기시대를 아우르는 오누키 시즈오(大貫靜夫)의 平底의 深鉢形土器를 煮沸具로 갖고 竪穴住居에 살던 독자적인 고고학 문화인 ‘極東平底土器’¹⁷⁾ 문화권이나 그에 해당하는 문화 설정도 가능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

(2) 신석기시대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신석기시대의 상한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14)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일지사, 1986 3판), 20~21쪽.

15) 최몽룡, 〈선사문화의 전개〉(《고등학교 국사》상, 교육부, 2002), 23쪽.

———, 〈한국문화사개관〉(《한국의 문화유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25~26쪽.

16) 찰스 레드만지움·최몽룡 옮김, 《문명의 발생》(민음사, 1995), 284쪽.

17) 大貫靜夫, 〈豆滿江流域お中心とする日本海沿岸の極東平底土器〉(《先史考古學論集》2, 1992), 42~78쪽.

《東北アジアの考古學》(同成社, 1998), 38쪽.

유적(사적 394호)의 기원전 6000년경으로 잡아왔다. 그러나 이 유적이 그 근처 溇湖 형성 후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과 발굴 층위자체의 문제점 등으로 보아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 최초의 유적이 되기에는 회의가 많다. 강원도에서만 오산리와 연대가 비슷하거나 올라가는 유적이 1998년 12월~1999년 3월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에서 발굴되었다. 이곳에서는 오산리식의 특징적인 압날문 토기와 문암리에서 출토된 독특한 문양구성의 덧무늬(용기문) 토기의 출토와 아울러 오산리보다 연대가 올라가는 집자리의 추가(A지구 최하층)발굴이 있어 주목된다.¹⁸⁾ 그러나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유적의 발굴 결과로 이 유적이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최고의 유적(10500 B.P.)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직 정식 학술조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가설로서 이 유적은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즉 ① 세석기와 석핵이 나오는 후기 구석기시대, ② 용기문 토기와 무경석축이 나오는 신석기 I기와 ③ 유경석축이 나오는 신석기 II기이다.¹⁹⁾ 그러나 이 층이 셋으로 세분하기에는 너무나 얇아 나오는 유물의 형식학적 분류만이 가능하다. 만약에 층의 구분이 안되더라도 ①과 ②의 세석기와 용기문 토기의 결합만 보더라도 이 유적의 상한은 아무르강 중부 평원 북부의 범위에 있는 11000~12000 B.P.(기원전 10000년 전후)의 오시포프카 문화에 속하는 가샤 유적이나 바이칼호 근처의 우스트 카렝카(기원전 7000년경), 일본 長崎縣 北松浦郡 吉井町 福井동굴(12700, 10750 B.P.), 佐世保市 泉福寺동굴이나 愛媛縣 上浮穴郡 美川村 上黑岩(12165, 10125 B.P.)岩陰 유적과의 관련성도 충분히 있다.²⁰⁾

18) 문화재연구소, <'98~'99 고성 문암리 신석기유적발굴조사 성과발표 : 문화관광 보도자료>. 춘천시 교동 한림대학교 구내 동굴유적(金元龍, <春川 校洞 穴居遺蹟과 遺物>, 《역사학보》 20, 1963)에서 발견된 토기도 오산리와 문암리와 마찬가지로 신석기시대 전기에 속할 가능성이 있으나 토기가 적고 정제된 점, 그리고 대형의 마제석부가 공반된 점은 좀더 고려해 보아야 될 점이다.

19) 최몽룡·김선우, 《한국 지석묘연구 이론과 방법》(주류성, 2000), 141쪽.

20) 최몽룡, 《한국문화의 원류를 찾아서》(학연, 1993), 130쪽. 이들 환태평양문화와 유사한 문화를 일본의 大貫靜夫는 한국의 원시무문(민무늬)토기 다음 단계의 것으로 생각되는 평저의 토기를 '極東平底土器로 총칭하며 深鉢形土器를 가지고 壓穴住居에서 사는 독자적인 고고학 문화'로 그 연대도 지금으로부터 7~8000년 전경으로 보고 있다(《東北アジアの考古學》(同成社, 1998), 38쪽; <豆滿江流域お中心とする日本海沿岸の極東平底土器>(《先史考古學論集》 2, 1992, 47

러시아 극동지구 아무르강 하류에 암각화로 유명한 사카치알리안 마을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가샤 유적이 있으며 이들은 오시포프카 문화에 속한다. 발굴자인 비탈리메드베데프(Vitaly Yergorovich Medvedev)에 의하면 이 유적들은 1975년 이후 1990년까지 8차의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롬(loam)층 바로 위가 중석기층이고 중석기층 바로 위의 신석기시대 주거지 바닥면하 점토층에서 세석기와 함께 10편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토기는 화씨 350도 정도(우리의 무문토기의 경우 573도 전후에서 구워짐)에서 구워진 것으로 그 층에서 얻은 목탄의 방사성 탄소 연대는 12960+ -120 B.P.이다. 그리고 오시포프카문화에 속하는 유적은 현재까지 5개소로 사카치알리안의 유적 3개소와 우수리 강 하류의 베누코보, 오시노바야 레치카의 두 군데이다. 오시포프카 문화에 유사한 유적도 두 군데나 되는데, 하나는 가샤지구 근처고 다른 하나는 南자바이칼의 세렝가강 근처이다. 모두 토기가 나오고 있으며 그 연대도 전자는 12000~10500년 사이고 후자는 11500+ -100 B.P.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11000~12000년 전에 최고의 토기가 발견되고 있는 지역은 아무르 강 유역이다. 更新世 말 맘모스나 주변의 대형 동물이 사라져 없어짐에 따라 대신 연어과에 속하는 어류로서 식료를 대신하고 수혈움집에서 정착 생활의 병행과 함께 이의 저장을 위해 토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²¹⁾ 따라서 토기는 중석기시대 새로운 환경의 변화와 생계 전략의 하나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유적으로 아무르강 하류의 수추섬을 들 수 있다. 1930년대에 유적의 존재가 알려진 후, 알렉세이 오클라드니코프 및 비탈리 메드베

쪽). 그리고 이에 관한 전반적인 학술 토론회가 1993년 日本考古學會심포지움으로 열렸다(小野昭・鈴木俊成編, 《環日本海地域の土器出現期の様相》, 雄山閣, 1994 및 최몽룡, 《도시·문명·국가》, 서울대출판부, 1997, 242쪽).

21) V. E. Medvedev, 〈がしや遺跡とロシアのアザア地區東部における土器出現のついて〉(《環日本海地域の土器出現期の様相》小野昭・鈴木俊成編, 雄山閣, 1994), 9~20쪽.

국립문화재연구소·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학민족학연구소, 《러시아 아무르강하류 수추섬 신석기시대 주거유적발굴조사보고서》(제1차 한·러공동발굴 조사보고서, 2000) 및 국사교과서 고등학교(교육부 2002), 19쪽.

최몽룡·이현중·강인옥, 《시베리아의 선사고고학》(주류성, 2002년 말 출간예정).

데프에 의해 10여 차례 발굴되었다. 이 섬에서는 기본적으로 최근(2002년 8월)에 새로이 확인된 기원전 6~8000년에 속하는 마린스카야문화에 이어 기원전 4~2000년 초엽의 말리이쉴레보 문화와 보즈네세보 문화에 속하는 집자리와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토기는 평저의 심발형이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토기의 문양은 압인문·용기문이 주로 시문된다. 수추섬의 신석기문화는 특히 한국의 함경북도 용기 굴포리 서포항 2·3기 층과 같은 시기이며, 기형 및 문양에서 유사성이 엿보인다.

그러나 최근 오누키 시즈오는 東三洞이나 西浦項 최하층, 그리고 연해주 최고의 토기로 여겨지는 고르바드카 3 상층, 이리스타야 I, 치모토프카 I, 우스치노프카 III과 아무르강의 사카치알리안 오시포프카문화에 속하는 가사 유적에서 보이는 原始無文土器(大貫의 無文土器, 오프라드니코프의 平滑土器)의 존재에 대해 회의를 느끼며 앞으로의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신석기와 청동기시대 또는 유문토기와 무문토기의 구분 대신 한반도 동북부의 西浦項 1~3층, 羅津, 農圃, 중국 동북부의 新開流와 鶯歌嶺 하층, 연해주 남부의 자이사노프카 I, 테체에 하층과 오레니 I, 아무르강 하류의 가사, 마르시예보, 콘돈과 보즈네세노프카, 그리고 아무르 강 중류의 그라마투하, 노보페트로프카와 오시노보에 湖 유적 등의 極東지역을 묶어 '極東平底土器'란 용어를 새로이 만들어내고 새로운 극동지역의 문화권을 설정하고 있다²²⁾.

최근 강원도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中東部先史文化圈'이란 용어가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다.²³⁾ 이는 양양군 현남면 地境里 빗살문 토기 집자리 7호(기원전 3355년 : I)와 6호(기원전 3035년 : II),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4570+/-60. 기원전 3000년경), 고성군 죽왕면 文岩里 등지의 새로운 발굴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강원도 신석기시대 전기(오산리, 춘천 교동, 문암리), 중기(지경리 I, II)와 후기(춘성군 內坪 : 기원전 980년 이전)로 지역 편년 설정을 하고 전기의 경

22) 大貫靜夫, 〈豆滿江流域お中心とする日本海沿岸の極東平底土器〉(《先史考古學論集》2, 1992), 47~78쪽.

23) 백홍기, 〈강원고고학의 회고와 전망—그 전개과정을 중심으로—〉(《강원학의 현재와 미래》, 강원개발원, 2000년 7월 7일), 48쪽.

우 함북 선봉군 굴포리와 무산 범의구석(호곡)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지방, 중기의 경우 황해도 봉산군 지탑리와 평남 온천군 궁산리 유적으로부터 영향을 밝혀내고 있다. 문화의 전파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생각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라파에는 LBK(Linear Band Keramik) 문화가 있다. 다뉴브 I 문화(Danubian I Culture)라고 불리는 이 문화는 유럽 중앙과 동부에서 기원전 5000년대부터 쉽게 경작할 수 있는 황토 지대에 화전민식농경(slash and burn agricultural cultivation)을 행하였고 또 서쪽으로 전파해 나갔는데, 이 문화와 공반된 토기의 문양이 우리의 빗살문(櫛文/櫛目文)토기와 유사하여 ‘線土器文化(Linear Pottery culture)라 한다.²⁴⁾ 이것의 獨譯이 Kammkeramik(comb pottery)로 번역하면 즐문(즐목문)토기로 우리말로는 빗살문토기이다. 일찍부터 이 문양의 토기들은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 빗살문토기의 기원과 관련지어 주목을 받아왔다. 해방 전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는 아마도 이 LBK의 토기들을 우리 나라의 신석기시대 토기들의 조형으로 생각하고 이들이 스칸디나비아를 포함하는 북유럽으로부터 시베리아를 거쳐 북위 55도의 환북극 지대를 따라 한반도에 들어왔다고 주장하였다.²⁵⁾ 이같은 견해는 金元龍에 이어져 “북유럽의 토기는 핀란드·스웨덴·북독일·서북 러시아의 카렐리아 지방에서 흑해 북안의 오카, 불가강 상류지방에 걸쳐 유행한 뽕족밧 또는 둥근밧의 半卵形 토기이다. 표면은 빗같은 多齒具의 빗살 끝으로 누른 점렬(密集斜短線列)과 뽕송곳의 끝을 가로 잘라 버린 것 같은 것으로 찌른 둥글고 깊은 점(pit)列을 서로 교체해 가며 …이를 영어로는 Comb-pit ware라고 부르며… 북부 시베리아의 환북극권 신석기 문화의 대표적 유물로 되어 있다.”²⁶⁾ 이러한 견해는 후일 시베리아 흑룡강 상류 쉘카강 북안의 석회굴에서 나온 빗살문토기(흑룡 강 상류의 수렵·어로인으로 기원전 2000~1000년경 거주)를 우리의 빗살문토기가 바이칼지구를 포함하는 범시베리아 신석기 문화에 포함시키게 된다.²⁷⁾

24) Barry Cunliffe, *Prehistory of Europe*(Oxford Univ. Press, 1994), p. 155.

25) 藤田亮策, 《朝鮮考古學研究》(高桐書院, 1948), 162쪽.

26)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일지사, 1986), 37~38쪽.

27) 金元龍, 〈시베리아 쉘카洞窟의 新石器文化〉(惠庵 柳洪烈博士 華甲紀念論總, 1971), 499~513쪽.

그리고 한강 유역의 첨저 토기와 함경도의 평저 토기도 원래는 한 뿌리로 알타이 지역을 포함하는 바이칼호 주변이 그 기원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수정된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²⁸⁾ 그러나 이는 11000~12000년 전 극동지방 최초의 토기가 나오는 오프카 문화의 대표적인 가사 유적을 발굴한 비탈리 메드베데프나 ‘極東平底土器論’을 주창한 오누키 시즈오의 새로운 견해가 나오므로써 한국 신석기 문화의 기원과 연대, 각 토기의 형식에 따른 새로운 문화전파 문제가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또 중국의 요녕지방의 신석기시대를 보면 요서지방의 查海 興隆窪 文化(기원전 5000년), 紅山 文化(기원전 3500년)와 小河沿 文化(기원전 3000년 이후), 요중지방의 新樂 文化(기원전 4500년), 扁保 文化(기원전 3000년), 요동지방의 小珠山과 後窪 文化(기원전 4000~2500년) 등 기원전 4000년~기원전 3000년경의 우리의 빗살무늬(櫛目文) 토기와 관계되는 주요 유적들이 발굴되고 그 편년 또한 잘 정리되고 있다. 그 중 신타크 유적에서 나타나는 토기 표면의 연속 호선문(갈-자문), 金州市 城內 제2유치원 근처의 빗살무늬 토기편, 그리고 河北省 武安 磁山(기원전 5300년)과 遷西 西寨 등지의 빗살무늬 토기들은 우리의 빗살무늬 토기 문화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²⁹⁾

농경의 기원문제 역시 또 다른 한국문화의 계통과 관련된 문제점이다. 벼농사의 경우 중국 호남성 풍현 팡두산의 기원전 7000년경의 벼(물벼)와 절강성 하모도촌의(기원전 5000~4600·5008년) 인디카와 야생종의 중간형의 벼를 비롯하여 극동아시아에 있어서 벼의 기원이 중국이라고 인정할 정도의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다.³⁰⁾ 우리 나라의 경우 신석기시대 최말기에 속하는 경기도 우도, 김포 가현리와 일산을 비롯하여 평남시 남경 호남리(기원전 999·1027년), 여주 혼암리(기원전 1260~670년)와 전남 무안 가흥리(기원전 1050년)에서 청동기시대의 유적에서 보고되고 있다.³¹⁾ 최근 충북 淸原 小魯리의 법씨가 13010/17310년 전의 후기 구석기시대까지 올라간다는 조사 보고도 나와

28) 한영희, <유물로 본 Altai와 한반도>(《알타이문명전》, 국립박물관, 1995), 186~189쪽.

29) 최몽룡, 앞의 책(1993), 72쪽.

30) 최몽룡, <쌀이야기>(《도시·문명·국가》, 1997, 서울대출판부), 270~277쪽.

31) 최몽룡, 위의 책, 275쪽.

있지만,³²⁾ 청동기시대 상한을 현재 기원전 1500년경으로 간주할 때 현재 벼가 인구증가와 더불어 단위 소출량을 증대시키는 관개농업으로 재배되는 것은 청동기시대로 여겨진다. 울산 무거동과 야음동, 부여 구룡면 구봉리(기원전 1450년) 논산 마전리(기원전 475년)와 이들보다 시기가 떨어지는 마한의 서기 2세기경의 천안 장산리 유적들이 이를 입증한다.³³⁾ 최근 전북 진안 용담댐 내 망덕과 갈두(갈머리) 신석기 중~말기유적에서 여러 점의 석제 보습(石耨)이 출토되었는데,³⁴⁾ 이는 해안가의 어패류에 의존해 살아가던 패총형성의 신석기시대의 전형적인 유적과 달리 내륙지방에서 농경을 기반으로 하여 살아가던 신석기시대 토착 농경사회의 또 다른 모습의 환경적응 결과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농경의 경우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적응, 곡물의 분석과 더불어 생활방식의 형태와 이웃문화로부터 영향과 현 민속자료의 비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³⁵⁾

(3) 청동기시대

신석기시대에 이어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 그리고 만주에서는 이보다 앞선 기원전 15세기경부터 청동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남한에서 최근의 발굴 조사에 의하면 청동기시대의 시작이 북한과 같이 10~15세기로 오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³⁶⁾ 공열 토기와 각형 토기가 나오는 강원도 춘천

32) H. S. Suh, J. H. CHO, Y. J. Lee & M. H. Heu, "RAPD Variation of the Carbonized Rice aged 13,010 & 17,310"(4th international Genetics Symposium(Manila, Philippines : 2000. 10. 22~27) : 2-15.

———, 충북대학교박물관·한국토지공사, 《청원 소로리 구석기시대유적》(2000).

33) 최근 충남대 박물관에서 발굴한 천안 長山리 유적의 경우 관개농업을 실시한 흔적이 뚜렷하며(충남대 박물관, 《천안 장산리 유적》 2000년 10월 5일 현장설명회 발표요지), 이와 관련된 저수지로서 제천 의림지와 김제 벽골제(서기 330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구봉리의 경우 충남대 백제문화재연구소의 발굴로 2001년 6월 1일 현장설명회 발표요지를 참조할 것.

34)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문화재연구원,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4차 발굴 조사 및 지식묘 이전복원 지도위원회 자료》(2000. 10. 28), 14쪽.

35) 국립중앙박물관, 《쌀-도작문화 3000년-》(2000). 쌀은 아니더라도 주거지 근처의 터밭에서 화전민식농경(slash & burn agricultural cultivation)에 의한 잡곡류의 생산은 평안남도 온천군 궁산리와 황해도 봉산군 지탑리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시 서면 신매리 주거지 17호 유적(1996년 한림대 발굴, 서울대 'AMS(질량분석이온빔가속기)' 연대측정결과 3200+ \pm 50 B.P. 기원전 1510년, 문화재연구소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는 2840+ \pm 50 B.P. 기원전 1120~840년이라는 연대가 나옴),³⁷⁾ 경기도 평택 지제동(기원전 830년, 기원전 789년),³⁸⁾ 청주 용암동(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년 12월 : 기원전 1119년),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1999년 6월 : 기원전 970~540년, 기원전 1530~1070년 사이의 두개의 축청연대가 나왔으나 공반유물로 보아 기원전 8~10세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중간연대도 기원전 809년과 기원전 1328년이 나왔다), 충주 동량면 조동리(1호 집자리 2700+ \pm 165B.P., 1호집자리 불멘 자리 2995+ \pm 135B.P. 기원전 1세기경),³⁹⁾ 대구시 수성구 상동 우방 아파트(구 정화여중고), 여천 화장동 고인돌(기원전 825, 795, 685년), 대전 대덕구 비래동 고인돌(기원전 1005년)과 속초시 조양동 유적(1992년 7월 : 사적 376호)들이 기원전 7~10세기 경으로, 그리고 강릉시 교동의 집자리 경우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적인 것으로 방사성 탄소측정 연대도 기원전 1130~840년 사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구연부에 短斜線文과 口曆刻目文이 장식된 孔列二重口緣土器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서북계의 角形土器와 동북계의 공열토기가 복합된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하바로프스크 고고학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시피얀콥스키나 리브도카와 같은 연해주지방의 청동기시대에 기원한다고 하겠다. 이의 우리 나라의 최초 예로 이제까지 기원전 7세기 전후의 유적으로 여겨져 왔던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 유적⁴⁰⁾을 들었으나 이곳 강릉 교동 유적이 앞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북계와 동북계의 양계의 문화가 복합된 최초의 지역이 남한강 유역이라기보다는 태백산맥의 동안인 강릉일

36) 최몽룡, <청동기시대 개요>(《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97), 5쪽.

——, <21세의 한국고고학>(《한국사론》 30, 국사편찬위원회, 2000).

——, <21세기 한국고고학의 새로운 조류와 전망>(한국상고사학회 제27회 학술발표회 기초강연, 2002. 4. 26).

37) 춘천시 서면 신매리 지표조사에서 단사선문이 있는 이중구연의 토기편이 발견되었다(최몽룡 외, 《북한강유역의 선사문화》, 서울대 박물관, 1998, 36쪽).

38) 최정필·하문식·황보경, 《평택 지제동 유적》(세종대학교 박물관·한국도로공사, 2000), 422~423쪽.

39) 충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안내》(2000), 14쪽.

40) 崔夢龍, <欣岩里 先史聚落址의 特性>(《韓國考古學報》 20, 1987), 11쪽.

가능성은 앞으로 문화 계통의 연구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또 속초시 조양동에서 나온 扇形銅斧는 북한에서 평안북도 의주군 미송리, 황해북도 신계군 정봉리와 봉산군 송산리, 함경남도 북청군 토성리 등지에서 출토된 예가 보고되어 있지만⁴¹⁾ 남한에서는 유일한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시작은 기원전 15세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으나(현재 학계는 우리 나라 남한의 청동기시대 전기는 기원전 15~10세기로 올리고 있음), 토기의 시작에서 보면 청동기의 수용은 그 연대를 약간 늦게 본다. 이는 청동기시대의 단사문문이 있는 이중구연토기의 단계 다음 각형토기와 공열토기가 사용된 후 이후에야 청동기가 북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보는 견해 때문이다. 속초 조양동의 경우 바로 위쪽의 함경남도의 동북지방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 나라의 거석 문화는 지식묘(고인돌)와 입석(선돌)의 두 가지로 대표된다. 그러나 기원전 4500년 전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거석 문화의 발생지로 여겨지는 구라파에서는 지식묘(dolmen), 입석(menhir), 스톤써클(stone circle : 영국의 Stonehenge가 대표), 스톤 어라인먼트(Stone alignment : 불란서 까르낙이 대표)와 연도(널길)있는 석실분(passage grave), 연도(널길)없는 석실분(gallery grave)의 여섯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⁴²⁾ 이중 거친 할석으로 만들어지고 죽은 사람을 위한 무덤의 기능을 가진 지식묘⁴³⁾는 우리 나라에서만 약 29,000기가 발견되고 있다.⁴⁴⁾ 중국의 요녕성⁴⁵⁾과 절강성⁴⁶⁾의 것들을 합하면 더욱 더 많아질 것이다. 남한의 고인돌은 北方式, 南方式과 蓋石式의 셋으로 구분하고 발달 순서도 북방식-남방식-개석식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지식묘는 침촌리와 오덕리의 두 형식으로 대별되는데, 그 발달 순서도 변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유적유물도감》(1989).

42) Glyn Daniel, 《The Megalith Builders of Western Europe》(Penguin Books 1962), pp. 11~28.

43) Roger Joussaume, 《Dolmens for the Dead—Megalithic Building through the World—》(B. T. Batsford Ltd London, 1985), p.13.

44) 崔夢龍·金仙宇, 앞의 책(2000), 2쪽.

45) 河文植, 《古朝鮮 地域의 고인돌 研究》(백산자료원, 1999).

46) 李榮文, 《中國 浙江省地域의 地石墓》(《文化史學》 11·12·13집, 1999), 1003~1044쪽.

형의 침촌리식(황해도 황주 침촌리)에서 전형적인 오덕리(황해도 연탄 오덕리)식으로 보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식묘 사회는 일반적으로 전문직의 발생, 재분배 경제, 조상 숭배와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계급 사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하여는 연대와 형식의 문제점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라과쪽에서 전파된 것으로 보다 ‘韓半島自生說’⁴⁷⁾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비해 한 장씩의 판석으로 짜 상자모양으로 만든 石棺墓 또는 돌널무덤(石箱墳)의 형식이 있다. 金元龍은 “이러한 석상분은 시베리아 청동기시대 안드로노보기에서부터 나타나 다음의 카라숙-타가르기에 성행하며 頭廣足狹의 형식과 屈葬法을 가지며 우리 나라에 전파되어 청동기시대 지식묘에 선행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이 분묘는 확장되어 북방식 지식묘로 그리고 지하에 들어가 남방식 지식묘로 발전해 나가는 한편 영남지방에서는 石槨墓로 발전해 삼국시대의 기본 분묘형식으로 굳히게 된다”고 보고 있다. 즉 그는 석관묘(석상분)-지식묘(북방식/남방식)-석곽묘로 발전한다고 생각하며, 대표적인 석관묘의 유적으로 銅泡와 검은 긴 목항아리가 나온 江界市 豊龍里, 鳳山郡 德岩里, 丹陽 安東里를 들고 있다.⁴⁸⁾ 석관묘(석상분)와 지식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하여는 선후 문제, 문화 계통 등에 대해 아직 연구의 여지가 많다.⁴⁹⁾

러시아에서도 암각화의 연대에 대하여 이론이 많지만 대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암각화 유적은 예니세이강의 상류인 손두기와 고르노알타이 우코크의 베르텍과 아무르강의 사카치알리안(또는 시카치 알리안)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상응하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암각화는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암

47) 최몽룡, <한국 지식묘의 기원과 전파>(최몽룡·김선우, 앞의 책, 2000), 9~17쪽.

48)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일지사, 1986), 96~97쪽.

49) 최근 남쪽의 지식묘관계 유적의 절대연대로 전남 여천군 화장동이 기원전 825·795·685년, 대전 대덕구 비례동이 기원전 1005년, 그리고 화순 춘양면 대신리가 기원전 555년의 연대가 나와 파주 옥석리의 기원전 640년과 황석리의 기원전 410년이 나온 1960년대의 지식묘 연대보다 훨씬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식묘의 상한연대가 비파형동검과 더불어 기원전 10세기 이전을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졌다. 그러나 여천 화장동에서 출토한 비파형동검은 재가공(제사용)의 흔적이 있어 연대를 산출하는 데 주의를 요한다.

각화(국보 147호), 울주 언양면 대곡리 반구대(국보 285호), 고령 양전동(보물 605호)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함안 도항리, 영일 인비동, 칠포리, 남해 양하리, 상주리, 벽연리 영주 가흥리, 여수 오림동과 남원 대곡리를 들 수 있다. 울주 천전리의 경우 人頭(무당의 얼굴)를 비롯해 동심원문·뇌문·능형문(그물문)과 쫓아파기로 된 사슴을 비롯한 여러 동물들이 보인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러시아의 손두기, 베르텍과 사카치알리안의 암각화에서도 보인다. 이의 의미는 선사시대의 일반적인 사냥에 대한 염원, 어로, 풍요와 多産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반구대의 고래암각화는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오젯타의 마카부락민들처럼 고래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당시의 풍부한 고래잡이의 염원에 대한 표시일 것이다. 또 그들 신화의 반영도 된다. 사카치알리안 암각화의 동심원은 ‘아무르의 나선문(Amur spiral)으로 태양과 위대한 뱀 무두르(mudur)의 숭배와 관련이 있으며 뱀의 숭배 또한 지그재그(갈之자문)문으로 반영된다. 하늘의 뱀과 그의 자손들이 지상에 내려올 때 수직상의 지그재그(이때는 번개를 상징)로 표현된다. 이 두가지 문양은 선의 이념(idea of good)과 행복의 꿈(dream of happiness)을 구현하는 동시에, 선사인들의 염원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물문(Amur net pattern)은 꿈이 실현되기 전 儀式 과정 중에 묶인 끈이나 사슬을 묘사하며 이것은 최근의 아무르의 예술에도 사용되고 있다.⁵⁰⁾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나나이(Nanai)족의 조상이 만든 것으로 여겨지며 그 연대는 기원전 4~3000년경(이 연대는 그보다 후의 청동기시대로 여겨짐)으로 추론된다고 한다. 이들은 肅愼-挹婁-勿吉-靺鞨-女眞-滿州-淸으로 이어지는 역사상에 나타나는 種族名의 한 갈래로 현재 말갈이나 여진과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은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 전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일만(포항)에서부터 시작하여 남원에 이르는 내륙으로 전파되었음을 본다. 아마도 이들은 아무르강의 암각화 문화가 海路로 동해안을 거쳐 바로 영일만 근처로 들어온 모양이며 이것이 내륙으로 전파되어 남원에까지 이른 모양이다. 청동기시대의 석판묘, 지석묘와 비파형동검의 전파와는 다른 루트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계통도 달랐던 것으로

50) Alexei Okladnikov, *Art of Amur*(New York : Harry N. Abrams, INC., Pb. 1981), p. 92.

집착이 된다. 그러나 포항 인비동과 여수 오림동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존의 청동기(비파형 또는 세형동검)과 마제석검을 사용하던 청동기~철기시대 전기 사회에 쉽게 융화되었던 모양이다.⁵¹⁾ 우리의 암각화에서 보여주는 사회의 상징과 표현된 신화의 해독이 아무르강의 사카치알리안의 암각화와 기타 지역의 암각화와의 비교연구 그리고 이의 결과에 따른 문화계통의 확인이 현재 한국 문화의 기원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이다.

(4) 철기시대

철기시대 전기(기원전 300~기원전 1년)는 위만조선(기원전 194~108)의 국가형성과 낙랑군의 설치(기원전 108~서기 313년)가 중복되어 있어 한국에 있어 사실상 역사 고고학의 시작 단계이다.⁵²⁾ 이 시기에는 토광묘, 한자와 철기 문화가 들어오며 후일 철기시대 후기(서기 1~300년)에 속하는 서기 372년(고구려 소수림왕 2년) 불교의 유입과 함께 한국의 문화는 조선시대 한일합방(1910년)때까지 거의 전역이 중국권으로 접어들게 된다.⁵³⁾ 낙랑군의 설치와 이에 따른 중국 漢 문화의 확산은 경북 영일군 신평면 마조리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晋代의 湖巖美術館 소장 晋率濊伯長印과 함께 주로 철기시대 전기의 유적인 강릉시 병산동과 동해시 송정동의 凸자형 주거지에서 나오는 낙랑계통의 토기들은 東濊시대의 존재 가능성을 한층 높여준다.⁵⁴⁾

金元龍은 현 英國 大英博物館 소장의 ‘鳥形柄頭 細形銅劍’이 우리나라에서 철기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유물인 세형동검의 자루 끝에 ‘鳥形 안테나’가 장식된 안테나식 검(Antennenschwert, Antennae sword)으로 보고, 그것이 오스트리아 잘츠캄머구트 유적에서 시작하여 구라파의 철기시대의 대명사로 된 할슈타트(Hallstatt : A-기원전 12~11세기, B-기원전 10~8세기, C-기원전 7세기

51) 최몽룡, 《도시·문명·국가》(서울대 출판부, 1977), 213~217·245쪽.

52) 崔夢龍, 〈歷史考古學研究의 方向〉(《한국상고사》, 한국상고사학회, 민음사, 1989), 97~102쪽.

53) 金元龍, 〈한국문화의 기원〉(《文理大教養講座》,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1972), 1~24쪽.

54) 강릉대학교 박물관, 〈동해시 송정동 중심도로 건설지역 문화유적 긴급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1999년 11월 7일), 25호 출토지 토기.

D-기원전 6세기) 문화에서 나타나는 소위 ‘날개달린 물미’(winged chape)에 스키타이식 동물문양이 가미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⁵⁵⁾ 이는 현재로서는 ‘臆測의 小見’에 불과하나 스키타이식 銅鍍과 청동제 馬形帶鉤가 金海 大成洞과⁵⁶⁾ 永川 漁隱洞에서,⁵⁷⁾ 동북과 鐵鍍이 金海 良洞里⁵⁸⁾에서 나타나는 점을 보아 앞으로 우리 문화의 전파와 수용 방향이 의외로 다양할 것이라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동북의 경우 러시아 시베리아의 우코크에서 발견된 스키타이 고분,⁵⁹⁾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주 오르쭈노키제시 톨스타야 모길라 쿠르간 봉토분(1971년 모조레브스키 발굴)⁶⁰⁾과 로스토프지역 노보체르카스크 소코로프스키 계곡 5형제 3호분(1970년 라에프 발굴),⁶¹⁾ 카스피해 북안의 사브라마트, 세미레치예, 투바의 우육과 미누신스크 분지의 카카르 문화 등⁶²⁾과 중국 遼寧省 北票市 章吉 管子鄉 西沟村(喇嘛洞)古墓 (1973년 발굴, 鮮卑문화)과 吉林省 榆樹 老河深⁶³⁾ 등지에서 볼 수 있는 북방계 유물인 것이다. 우리 문화에서 나타나는 북방계 요소는 철기시대 전기(기원전 300~기원전 1년) 이후 동물형 문양의 대구나 동북의 예에서와 같이

-
- 55) 金元龍, 〈鳥形안테나식細形銅劍의 문제〉(《백산학보》 8호, 1970), 3쪽.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안테나식 검이 평양, 대구 飛山洞·池山洞의 3점이 안테나(觸角)식 동검과 雙鳥形劍把頭飾으로 보고되고 있다(金元龍의 《韓國考古學概說》, 일지사, 1986, 105쪽; 국립중앙박물관, 《韓國의 靑銅器文化》, 범우사, 1992, 71쪽).
- 56) 경성대학교 박물관, 《金海大成洞古墳群 I》(2000), 61쪽.
경성대학교 박물관, 《金海龜旨路古墳群》(2000), 189쪽.
- 57) 梅原末治·藤田亮策 편저, 《조선고문화종감》 제1권(養德社, 1947), 도판 제26(其4).
- 58) 동의대학교 박물관, 〈金海良洞里 第162호 土壙木槨墓 發掘調査概要－현장설명자료〉(1991. 11).
林孝澤·郭東哲, 《金海良洞里 古墳文化》(東義大博物館, 2000), 54·77쪽.
- 59) 최몽룡, 〈시베리아 고고학의 최근성과〉(《알타이문명전》, 국립중앙박물관, 1995), 12쪽.
- 60) 日本放送協會, 《Scythian Gold—Museum of Historic Treasures of Ukraine—》(1992), 61쪽.
- 61) 국립중앙박물관, 《스키타이황금－소련 국립 에르미타주 박물관소장－》(1991), 274쪽.
- 62) 정석배, 〈선홍노－스키타이 세계 소고－〉(《한국상고사학보》 32집, 2000), 63~74쪽 도면 참조.
- 6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編, 《榆樹老河深》(1987), 49쪽.

뚜렷해진다.

2000년 6월 20~22일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된 울릉도 북면 현포 1리의 제단은 적석으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기단 위에 3열 15개의 입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석의 높이는 1.5~2m이며 이중 두 개는 이곳에서 빼내어져 이웃 현포 초등학교 건물입구의 제단 양측에 세워져 있다. 이런 류의 제단은 한국 최초의 발견이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제단은 몽고지방 청동기 시대 중 카라숙 문화에서 이미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사슴돌, 제단, 케렉수로 불리며 울릉도의 것과 비슷한 예로는 우쉬키인-우베르 제단 등을 들 수 있다.⁶⁴⁾ 울릉도에서는 현포 1리, 서면 남서리와 울릉읍 저동리에서 새로이 발견된 고인돌들, 그리고 현포 1리에서 발견된 무문토기, 紅陶片, 갈돌판과 갈돌⁶⁵⁾들을 볼 때 입석이 서 있는 제단 유적은 이들과 같은 시기에 이용된, 적어도 철기시대 전기(기원전 300년~기원전 1년)에 속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점도 있다. 우리의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 전기의 문화 계통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미누신스크 청동기 문화 중 안드로노보(기원전 1700~1200년), 카라숙(기원전 1200~700년)과 타가르(기원전 700~200년) 문화기이다. 그중 카라숙 문화에서 돌널무덤(석상분, 석관묘, cist)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 다음의 타가르 문화는 전기의 청동기시대(기원전 7~5세기)와 후기의 철기시대(기원전 4~3세기)가 되는데,⁶⁶⁾ 그곳 철기시대에도 우리의 철기시대 전기와 마찬가지로 청동거울을 쓰고 있다. 그런데 청동거울의 배면에 있는 꼭지가 우리 것은 둘인 多鈕細文鏡(잔무늬거울)으로 불리고 있는데 반해 타가르의 것은 하나인 單鈕鏡인 것이며, 또 칼도 곡검(琵琶形)이 아닌 날이 가운데가 휜, 彎入된 것이다. 타가르 문화의 청동검과 거울은 실제 만주와 한반도에서 보이는 고조선(요녕식, 비파형) 동검이나 거친 무늬와 잔무늬 거울과는 다르다. 이는 우리가 종래 생각해오던 청동기와 철기시대의 기원과 직접 관련지어 생각할 때 고려의 여지를 두어야 할 것이다.⁶⁷⁾

64) 노브고라도바(정석배 역), 《蒙古의 先史時代》(학연, 1995), 299~300쪽.

65) 崔夢龍 외, 《鬱陵島》(서울대 박물관, 1998).

66)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제3판(一志社, 1986), 63~64쪽.

4) 한국문화의 다원론

한국의 문화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미세하나마 독자적인 편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근 이의 성과는 강원도지역의 ‘中東部先史文化圈’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강원도의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 시대인 原史時代는 東濊로 대표되는데, 이 시기는 아직 국가 단계 이전의 족장사회로 철기시대 전기(기원전 300~기원전 1년)에 속한다. 한국의 고고학은 종래의 단선적인 편년관에서 벗어나 강원도의 경우처럼 새로운 지역적 편년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⁶⁷⁾

문화의 기원에 관한 한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단일·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다원·복합적인 것이다. 그만큼 한국 문화의 기원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초보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제까지의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생각보다 여러 계통의 문화가 시기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달리 유입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신석기시대의 기원이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유적의 경우에서와 같이 아무르강의 오시포프카 문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으며, 그 연대도 종래 생각했던 기원전 6000년이 아니라 기원전 8000년을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 아무르강 하류의 수추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웅기 굴포리 서포항 2~3기의 신석기 문화와 같은 유물이 출토되는 점은 아무르강의 수추섬-연해주의 보이즈만-함경북도 서포항·羅津 등을 연결할 수 있는 공동의 문화권 설정도 가능하다. 이는 이미 오누키 시즈오의 ‘極東平底土器’ 문화권과도 맥을 같이 한다. 또 서해안 지구의 전형적인 빗살무늬 토기는 편란드-아무르강의 쉘카-바이칼호-한반도로 이어지는 문화계통보다 요녕성의 新樂과 小珠山 지구의 신석기 문화와의 관련성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종래 한국 신석기시대의 문화의 기원만을 국한해 이야기 할 때에도 단순히 북방계통만으로 언급할 것이 아니라 신석기 자체 편년에 따른 다각도의 문화 기원설이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문화계통의 다원론이 언급될 때가 된 것이다. 즉 종전의 빗살문 토기의 단선적인 시베리아 기

67) 최몽룡, 앞의 책(1993), 117쪽.

68) 여기에 대하여는 《강원도의 고고학》(주류성, 2004년 예정)이란 책을 준비중이다.

원설은 여러 가지 문화계통의 하나, 즉 다원론적 입장에서 수정·보완할 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우리의 고고학 편년 중 일제시대의 식민지 사관의 영향하에 만들어진 금석빙용기(aneolithic, chalcolithic age)시대가 북한학자들의 노력으로 폐기되어 청동기시대로 대체된 지 오래고 그 연대의 상한도 기원전 15세기경을 오르게 되었다.⁶⁹⁾ 이것은 남쪽의 청동기시대 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강릉시 교동의 유적을 비롯한 여러 유적의 연대 상한이 점차 증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사적 11호)의 발굴로 인해 종래 식민지 사관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원삼국시대란 용어가 점차 설득력을 잃고⁷⁰⁾ 대신 ‘철기시대 후기’ 또는 ‘삼국시대 전기’(서기 1년~서기 300년)란 용어가 힘을 얻고 있다. 이는 《三國史記》의 삼국시대 개시기에 대한 연대의 인정에서 비롯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取信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고고학자료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신빙성을 점차 입증해 주고 있다. 이들은 통해 우리의 긍정적인 역사관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⁷¹⁾

또 마지막으로 언급되어야 할 점은 우리의 고고학에 있어서 문화계통의 다원론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적극적으로 응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방사성탄소연대와 같은 절대 연대를 비롯하여, 토기의 바탕흙(태토)의 성분 분석을 하여 산지의 추정을 거쳐 무역의 존재까지 입증해 주는 주사전자 현미경 분석과 X-선 회절분석 등이 포함된다.⁷²⁾ 그리고 최근 무덤 속의 인골들의 인척 관계와 殉葬 문제까지를 밝혀주는 DNA 분석도 가능하다. 그리고 토양썰기(soil wedge) 또는 언땅트기(ice

69) 최몽룡 외, 《한국사》 3(국사편찬위원회, 1997), 5쪽.

70) 金貞培, 《韓國古代史와 考古學》(신서원, 2000), 243~254쪽.

71) 최몽룡, 《흙과 인류》(주류성, 2000), 277~284쪽.

72) 최몽룡외, 《고고학과 자연과학》(서울대 출판부, 1996), 36쪽. 최근(2002년 8월 21일 현장설명회)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南陽州好坪) camp site in situ인 후기 구석기시대(16,500~33,000B.P) 유적에서 다양한 흑요석제 석기와 함께 外來의 것으로 추정되는 chalcedong(옥수: 玉髓)로 만들어진 석기도 두점 출토되었다. 앞으로 이들의 원산지 파악이 후기구석기시대의 문화계통을 연구하는데 절대적이다.

wedge) 현상의 확인에 의해 구석기시대의 층위를 확인해 주는 연구까지 심화되고 있다.⁷³⁾ 이와 같이 자연과학의 연구방법론을 한국고고학 연구에 응용하면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역 편년 문제를 포함하는 한국고고학의 객관적인 편년 문제, 문화의 다원론적인 기원과 다양한 문화권의 설정에 대해 지금보다는 좀더 학문적으로 심화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崔夢龍〉

2. 민족학적으로 본 문화계통

한국사의 주인공인 한민족이 과연 어떤 기원을 갖고 있으며, 나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가 하는 민족 계통론에 대해서는 종래 역사학을 비롯하여 고고학, 민속학, 형질인류학, 국어학 등 인접 학문분야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만족할 만한 이해에 도달하지는 못한 듯한 느낌이 든다. 주지하듯이 민족이란 역사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깊은 자각에 의해서 뭉쳐진 하나의 문화적 개념인데, 이 같은 민족의식은 대개 근대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하여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 시기에는 흔히 인종 혹은 종족과 같은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는 신체의 유전적 특성에 기초한 다분히 생물학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다.

민족학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의 여러 종족, 민족(ethnos)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인류의 생존양식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이와 동시에 생존양식의 법칙성 내지 규칙성을 발견한다거나 혹은 그 생활 양식들의 역사적·계보적 관계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민속학은 기록되지 않은 근대 이전 전통사회의 의식주를 비롯한 사회구조, 신앙과 의례, 각종 기술 등 생활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민속학 발달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학과 민속학 양자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여 그 차이를 거의 구별

73) 최몽룡외, 《고고학연구 방법론》(서울대출판부, 1998), 275쪽.

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민족학에서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문화라고 하고, 문화를 공유하면서 ‘우리’ 의식으로 뭉쳐 있는 인간집단을 민족이라고 부른다. 현재 한국인은 한민족과 同義語로 사용될 만큼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단일민족이다. 한국사에서 한국문화 내지 한민족의 출발점을 어느 때로부터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겠으나, 일단 신석기시대를 한국문화의 원점, 청동기시대를 한민족 및 한국문화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민족의식은 대체로 삼국시대부터 생성되기 시작했다고 보이며,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에 따라 국토가 한반도로 고정된 뒤로부터 사회의 급속한 동질화 현상이 진행되어 단일 민족의식이 대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여진다. 그 뒤 고려 초에 歸附해 온 발해 유민을 흡수 통합하고 아울러 같은 시기에 정력적으로 추진된 북방 개척에 따라 고려에 편입된 국경지대의 女眞人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써 한민족 형성의 최종적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민족의 기원 내지 계통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은 形質인류학적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선사시대 및 역사시대 초기의 人骨자료를 갖고 비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한국의 토양은 산성을 띠고 있는 지역이 많은 까닭으로 해서 그 遺存 상황이 매우 不良하여 한국인의 형질을 계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현재 한국인의 신체적 특징을 여로 모로 計測한 수치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역시 유효한 것은 혈액형 유전자에 의한 비교 검토라고 할 수 있다. 지난날에는 A·B·O式 혈액형 분류에 따른 수치를 갖고 한민족의 유전형질상의 특징을 다른 민족의 그것과 대비하여 상호간의 친연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쳤으나, 최근에는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말미암아 가령 혈청 속의 抗體분자인 免疫 글로불린-감마(Gm)에 관한 유전 표지의 유전자 빈도라든지 ‘사람 백혈구 抗原(HLA)’에 관한 유전자 빈도, 혹은 미토콘드리아 DNA(mt DNA) 단편의 자료 분석에 의한 비교 검토 등 집단유전학 부문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한국인이 일본인과 더불어 북방계 몽골인

중집단으로 분류되지만 한편 남태평양 집단의 유전자도 일부 이어받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외에 한민족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추구하는 데 직접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질인류학의 방법을 제외한다면 현재 한민족의 계통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학문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언어에 의한 연구이다. 이는 언어의 구분은 대체로 민족의 구별과 일치한다는 命題에서 출발하여 한국어의 특징을 주변 여러 민족의 언어와 비교한다. 실제로 오늘날 집단유전학자들도 언어와 유전자 사이에는 의미있는 유사점들이 많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는 중국의 고대 문헌에 보이는 山東방면, 만주(중국 동북지방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지만, 편의상 만주라는 호칭을 사용함) 그리고 한반도에 거주한 여러 종족의 이동 내지 이합집산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추적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한국의 선사시대 및 고대의 문화적인 특징을 고고학과 민족학적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남태평양 각지의 그것과 비교 검토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본서에는 중국문헌과 고고학적 자료에 입각하여 한민족의 계통을 다룬 글이 실릴 예정이다. 또한 한국어의 특징과 그 계통에 대한 專論이 역시 수록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민족학분야에 국한하여 그간 역사학과 민속학계에 축적되어 온 한민족·한국문화의 기원과 계통에 관련되는 여러 연구성과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즉 종래의 연구사를 개관한 다음 특히 《三國志》魏書 東夷傳의 민속 관련 기사들을 주로 문화계통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

1) 한민족·한국문화 기원론의 흐름

(1) 한민족 형성과정에 대한 세 개의 입장

— 혼혈론·주민 교체설·단혈성론 —

주지하듯이 孫晉泰는 해방공간에서 신민족주의 역사관을 제창한 지도적인 역사학자였다. 한편 그는 오늘날 역사민속학 혹은 민족문화학의 선구자로도

간주되고 있다. 그가 1930년대 한국민속학의 정립기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데는 이의가 없는 듯하다. 그는 본격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온돌·민가·혼인습속·놀이·고인돌(돌멘) 등 다양한 민속과 口碑 전승을 수집, 비교 검토했을 뿐 아니라 문헌 분석을 통해 蘇塗 등 고대 민속의례의 역사적 연구에 착수했다. 이처럼 그는 민중의 생활문화사를 재구성한다는 19세기 이래의 민속학의 과제에 충실하게 대처했다.

한국문화의 기초 구성을 밝혀보려는 손진태의 민속 및 구비전승에 대한 연구는 해방 직후 《朝鮮民族說話의 研究》(1947)와 《朝鮮民族文化의 研究》(1948)로 정리되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특히 소도와 온돌, 고인돌을 다룬 기왕의 논문에 다소간의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그가 1930년대 이들 민속을 한반도 북부와 남부로 대별하여 지역적 유형에 따라 파악한다거나 나아가 이를 소위 북방계 혹은 남방계 종족의 차이에 말미암은 것으로 결부시켜 해석한 일본인 연구자들의 영향을 가능한 한 청산, 불식하려 한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민속과 구비전승의 연구에서 외래문화와의 접촉을 중시한 이른바 전파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다만 그는 외래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이를 한국의 것으로 만든 기반이 다름 아닌 문화전통이었음을 강조했는데, 이는 특별히 주목되는 점이다. 어쨌든 시대적 제약 속에서도 역사과학으로서의 민속학을 확립하려 한 그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로 이 같은 의미에서의 그의 선구자적 면모는 매우 확연하다.¹⁾

그런데, 손진태가 최초 관심을 기울인 부문은 민속이 아니라 한민족의 형성과정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인 1927년에 <조선 민족의 구성과 그 문화>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그는 한반도 각지에는 다양한 종족이 살고 있었으며 장기간의 혼혈과정을 거친 끝에 한민족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경상도에는 新시베리아족, 충청·전라도에는 舊시베리아족이 대부

1) 현재 손진태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민속학계 내부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민속학을 역사과학으로 규정, 기능주의적 입장에서의 여러 연구성과를 역사학적 시각에서 재평가하면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특히 비교방법에 의해 민족학적 역사재구성의 방향을 제시한 그의 업적은 1930년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분이었으며, 함경·평안·황해도에는 통구스족이 대거 주거했고, 남해안에는 소수의 인도차이나족과 倭族이 섞여 있었다고 한다. 뒤에 衛滿이 평양으로 이주하고 다시 그의 후손이 漢武帝에 의해 정복되면서 漢인들이 많이 평안도·황해도지방으로 이주한 결과 원주민인 통구스족과 漢族 사이에 혼혈이 성행했다고 한다.²⁾ 그리고 그 뒤 역사적 변천을 겪은 결과 비록 지역에 따라 우수 종족의 혈액상의 차이는 있었을지라도 전민족의 피는 완전히 한국적인 피로 화했으며, 삼국시대에는 이미 고구려·백제·신라가 각기 독자적인 민족의식을 갖고 투쟁하다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가 다시 한반도를 통일하면서 민족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논했다.³⁾

이 같은 그의 견해는 그로부터 20여 년 뒤에 나온 한국사 개설서인 《朝鮮民族史概論(상권)》(1948)에 거의 그대로 견지되어 있다. 그는 한민족이 몽골인종 중에서도 만주·시베리아종족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으며, 특히 통구스족과 ‘가까운’ 관계라고 했다.⁴⁾ 그는 ‘부족국가’ 시대에 한민족의 영역 내에 대체로 山川을 경계로 하여 부여족·예맥족·숙신(읍루)족·조선족·옥저족·예족·삼한족·고구려족 등 9개의 족속이 있었는데,⁵⁾ 이 때를 민족 형성의 ‘시초기’로 규정할 수 있으며, 삼국시대를 민족통일 추진기, 삼국통일에 따라 한민족이 일단 결정된 것으로 보았다.⁶⁾ 다만 그는 통일기 신라인의 민족의식은 주로 귀족층·지식층·도시 시민층 사이에서만 성장한 것으로 보았다.⁷⁾ 또한 그는 한민족의 완성은 현재의 국경이 확정된 조선왕조 世宗代 특히 1434년으로 볼 수 있다고 했으며,⁸⁾ 현재의 한국인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단일 血族이 아니라 4, 5종족의 혼혈로 된 복합민족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⁹⁾

2) 孫晉泰, 《韓國民俗·文化散考》(《孫晉泰全集》 제6권, 太學社, 1981), 36~38쪽.

3) 孫晉泰, 위의 책, 44~45쪽.

4) 孫晉泰, 《朝鮮民族史概論(상권)》(乙酉文化社, 1948), 17쪽. 그는 같은 책(18쪽 및 36~37쪽)에서 한민족이 통구스족에 ‘속하는 자’라고도 표현한 바 있다.

5) 孫晉泰, 위의 책, 46쪽.

6) 孫晉泰, 위의 책, 39~40·176·180쪽.

7) 孫晉泰, 위의 책, 213쪽.

8) 孫晉泰, 위의 책, 40·180쪽.

9) 孫晉泰, 위의 책, 18쪽.

한민족의 기원 내지 형성과정에 대한 논의는 그 뒤 1960년대에 들어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先鞭을 잡은 金廷鶴은 1964년에 발표된 장편논문에서 언어·체질·신화·민속·원시문화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다각도로 광범위하게 고찰하면서 한민족의 계통을 논했다. 그가 이와 동시에 한국과 인접한 여러 민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음은 물론이다. 그 결과 그는 고대 한국문화에는 북방적인 요소가 압도적이며, 한민족은 종래 일본인 연구자들이나 손진태가 주장해 온 퉁구스족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양 민족은 오랫동안 독립된 생활을 하여 왔으므로 알타이족 내에서 퉁구스족 등과 병행하여 하나의 민족단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그는 한민족의 구성에는 알타이족이 남쪽 또는 북쪽으로 이동 확산하기 전에 북방 아시아에 先住하고 있던 고아시아족(palaeo-Asiatics) 또는 고시베리아족(palaeo-Siberians)이나 이른바 남방민족의 요소도 섞여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시사했다.¹⁰⁾ 주지하듯이 1920, 1930년대에 만주족과 퉁구스족의 사회조직에 대한 연구서를 발표한 시로코고로프(S. M. Shirokogoroff)는 한 민족이 고아시아족에 속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김정학의 견해에 주로 고고학적 자료를 토대로 하여 논의를 크게 확대시킨 것은 金貞培였다고 할 수가 있다. 그에 의하면 한국 신석기문화의 주류를 이루는 有文토기(벉살무늬토기)는 시베리아와 연결되는 바, 이를 담당한 주인공은 고아시아족이며, 단군신화는 바로 꿈을 숭배한 고아시아족의 일파가 남긴 이야기라고 한다. 그런데, 신석기시대의 종말기에 고아시아족은 알타이어를 사용하던 알타이 諸語 계통의 족속에게 흡수 정복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無文토기를 만들어 쓴 주인공이며 역사서에 보이는 濊貊族으로, 이들의 출현에 의해서 비로소 한민족 형성의 기틀이 잡혔다고 한다. 한편 한국의 청동기문화는 출토 유물이나 유적으로 볼 때 중국의 문화와는 별개의 소산으로 오히려 그 기본성격에 있어서 시베리아 청동기문화와 관련을 갖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나아가 그는 한국의 청동기뿐 아니라 철기의 경우에도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10) 金廷鶴, 〈韓國民族形成史〉(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韓國文化史大系》 제1권, '民族·國家史'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64), 315~452쪽.

단정하기는 어렵고 역시 시베리아 연해주 방면의 철기와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한다.¹¹⁾

그 뒤 金元龍은 고고학의 입장에서 한민족의 기원문제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즉 그는 한국 구석기시대의 종말기로부터 신석기시대가 개막될 때까지 적어도 2000~3000년간의 단절현상이 보여 연속적 파악이 불가능한 점, 또한 신석기시대의 주민은 김정배의 견해처럼 고아시아족의 일부가 남하한 것으로 보는 쪽이 합리적이지만, 다만 이들을 동북 시베리아 방면으로 밀어내면서 청동기시대의 주인공이 된 무문토기인은 다름 아닌 통구스족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고아시아족과 통구스족 사이에는 종족상 큰 차이가 없으며, 통구스족 자체가 고아시아족의 지역화된 한 地域種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는 이들 두 민족의 기원을 찾아 형질·언어·문화상의 사소한 차이점을 거론하는 것은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양상을 흐리게 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²⁾ 사실 그는 일찍부터 무문토기인을 넓은 의미에서의 통구스족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는 이들이 바로 예맥족이며, 그들이 남한지역에서 남쪽으로부터의 영향 아래 남방적 요소를 가미하면서 약간 지방화한 것이 역사서에 보이는 韓族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예맥과 한은 같은 종족으로, 다만 지역차가 생긴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¹³⁾ 그것은 어쨌든 김원룡·김정배 양씨의 경우 신석기시대로부터 청동기시대로의 변화에 주민 교체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손진태의 견해를 혼혈론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견해는 편의상 주민 교체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계의 한민족 형성과정론의 흐름은 대체로 이상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학계의 공식견해는 우리와는 자못 달라 민족 單血性論이라

11) 金貞培, 《韓國民族文化의 起源》(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참조.

12)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제3권, 一志社, 1986), 22·24~25쪽 및 58쪽. 다만 김원룡은 같은 책에서 “고아시아족이 통구스족에 의해 동북시베리아로 밀려나게 되었다”(24쪽)고 기술하는가 하면 “두 민족의 혼합, 동화는 가까운 지역의 평화적 공존에서 雜居, 그리고 잡거에서 혼혈이라는 과정을 밟아 대체로 무난하게 이루어졌을 것”(59쪽)이라고 서로 모순되는 듯한 기술을 하고 있다.

13) 金元龍의 대담 발언(千寬宇 편, 《韓國上古史의 爭點》, 一潮閣, 1975, 108~109·171쪽).

부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는 북한에서 민족에 대한 개념의 변천에 대응하면서 1980년대에 들어와 정립되었다. 주지하듯이 북한에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스탈린의 민족에 대한 정의를 교조적으로 추종했다. 스탈린이 1950년 6~7월에 《프라우다》지상에 발표한 〈언어학의 약간의 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에 의하면 ‘나찌야(*natsia*, 민족)’란 언어, 영토, 경제생활, 심리적 상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오랜 역사를 거쳐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으로, 이는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성립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는 나찌야가 성립되기 직전의 단계를 ‘나로드노스찌(*narodnosti*, 민족체)’라고命名했는데, 북한에서는 이를 ‘準민족’으로 번역하여 한국사에 적용했다. 그리하여 1956년에 간행된 《조선통사》에서는 고대 삼국이 각기 ‘준민족’을 형성했으며, 신라의 삼국통일로 말미암아 ‘조선 준민족’이 되었다고 기술한 바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이른바 주체사상이 체계화되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스탈린의 민족에 대한 정의도 차츰 변질을 강요당하게 되고 끝내 폐기처분되기에 이른다. 즉 민족의 자주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민족 구성요소로서 새로이 혈통이 추가되고 머지 않아 경제생활의 공통성이라는 개념은 삭제되고 만다. 그리하여 1977년에 간행된 《조선통사》에서 민족 개념의 기준 지표로 ‘핏줄’과 언어를 강조하고, 이에 따라 민족형성의 시기를 삼국 이전으로 올려 잡은 것은 그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당국이 새삼스레 ‘핏줄’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은 1970년대 초부터 평양 일대의 동굴유적에서 구석기시대의 일련의 화석 인골자료를 확보한 데 연유한다. 즉 그들은 평남 덕천군 승리산에서 구석기시대 말기(약 1~2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됨)의 인골을, 또한 평양시 승호구역 만달리에서 역시 같은 시기의 인골을 발견, 이를 각기 승리산인, 만달인이라命名했다. 나아가 그들은 이 승리산인과 만달인이야말로 ‘조선 옛 類型사람’의 선조이며, 한편 현대의 한국인은 ‘조선 옛 유형사람’을 직접적 조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승리산인·만달인은 한국인의 始原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한민족의 시원이 외지에서 이동해 온 족속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조국 강토’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조선 옛 유형사람’들의 핏줄을 고스란히 이어 받은

單血性 주민집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한민족이 외부세계로부터 하등 수혈을 받지 않은 채 연면히 이어져 왔다는 단혈성론은 집단유전학의 상식으로 볼 때 그 이론적 기본 가정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더욱이 그들이 기본자료로 이용한 인골 화석문제에 있어서도 초보적인 자료 처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어 거의 믿기 어렵다는 평가가 유력한 실정이다. 바꿔 말하면 이 이론은 인간의 등장과 진화에 대한 주체사상적 해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북한에서의 학문적 탐구가 주체사상의 통치이념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 결코 학문적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한다.¹⁴⁾ 그런 만큼 이 이론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2) 퉁구스족과 예·맥·한족의 관계

최근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인류유전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한민족과 일본민족이 북방 몽골 계통에 속하며, 그 기원은 어찌면 시베리아의 바이칼호 부근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고고학 및 민족학 연구자들은 이를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고 있다. 즉 제4기 洪積世(일명 更新世)의 빙하기에 아시아대륙에 출현한 古몽골인종은 이리저리 대륙을 떠돌다가 바이칼호 근처에 갇혀있던 중 그 일부가 약 2만년 전 제4 빙하기의 흑한 때 한랭한 기후에 적응하면서 新몽골인종이 되었으며, 이들은 약 1만년 전 洪積世가 끝나고 沖積世(일명 完新世)의 초기인 後氷期가 시작되면서 기후가 따뜻해지자 남쪽으로 이동을 개시하여 만주와 한반도 전역에 정착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한민족의 직계조상으로 간주되는 신석기시대 주민인 썸이다. 다만 앞에서 보았듯이 김원룡은 한반도에 살던 구석기인들이 후빙기의 도래와 함께 원주지를 떠나 북쪽의 한랭한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나 혹은 반대로 한민족이 구석기시대 말에 바이칼호에서 이동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의심하는 반론도 만만찮은 실정이다.¹⁵⁾

14) 李鮮馥, 〈民族 單血性起源論의 檢討〉(歷史學會 編, 《北韓의 古代史研究》, 一潮潮閣, 1991), 1~24쪽 특히 12~24쪽.

앞에서 보았듯이 김정배는 한국 신석기문화를 담당한 주인공을 고아시아족이라고 주장했고, 김원룡은 이에 동의할 만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종족은 일찍이 시베리아로 진출한 古백색인종과 황색인종과의 혼혈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하며, 현재 동부 시베리아 북쪽 끝으로부터 남쪽으로 사할린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축치·캄차달(현재의 호칭은 이테르만)·코리야크·유카기르·길리야크(현재의 호칭은 니브호)의 계족과 에니세이강 중상류에 사는 케트족이 이에 속한다.¹⁵⁾ 이들 중 유카기르족은 현재는 인구수나 주거지가 급속히 축소된 채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언어 분포로 미루어 볼 때 시베리아의 광범한 지역을 점유했던 가장 오랜 원주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¹⁷⁾

한편 언어학자들은 고아시아족 계통의 언어가 알타이 諸語와 전혀 친근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한국어가 통구스 제어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어떤 언어학자는 한국어에 어떤 基層 언어가 있었을 것으로 상정하고 이를 이른바 ‘原始한반도어’로 명명, 어쩌면 이것은 길리야크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아시아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 논자는 《三國志》魏書 東夷傳에 보이는 읍루(挹婁)족이 그 위치로 미루어 길리야크족(아무르강 하구와 사할린 일부 지역에 거주)의 선조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¹⁸⁾ 이 같은 想定의 배경에는 신석기시대 한반도의 주인공이 고아시아족에 속한다는 일부 고고학 연구자의 견해가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날 일본인 학자들이나 손진태는 한민족을 흔히 통구스족에 ‘속한다’거나 혹은 그와 ‘가까운’ 족속이라고 정의했으나 김정학이 이를 따르는 대신 알타이족(알타이어족의 의미)의 한 독립된 민족단위(ethnic unit)로 설정할 것을

15) 李鮮馥, 위의 글, 18~19쪽. 이선복은 이 같은 견해를 ‘한반도 주민 代替說’이라고 命名하고 있다.

16) M. G. Levin, *Ethnic Origins of the peoples of Northeastern Asia*(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3), p. 27. 金元龍의 앞의 책(24쪽)에서 재인용.

17) 三上次男·神田信夫 공편, 《東北アジアの民族と歴史》(‘民族の世界史’ 제3권, 山川出版社, 1989) 제1부 제2장, 〈民族と文化の系譜〉(荻原眞子 집필, 71쪽) 및 제2부 제3장 〈ロシア人の進出とシベリア原住民〉(加藤九祚 集필, 452쪽).

18) 金芳漢, 《韓國語의 系統》(民音社, 1983), 제3장.

제한한 이래 김정배가 이를 취한 바 있다. 실은 인류학자 중에서도 통구스족 설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없지 않은 듯하다. 요컨대 통구스족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족속이고 한민족이 마치 그 別種인 것처럼 논하는 것은 통구스족이 수행한 역사상의 활동이라든지 혹은 현재의 인구수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¹⁹⁾ 하지만 김원룡을 비롯하여 국외의 대다수 연구자들은 변함없이 통구스족 개념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가령 만주족의 예를 들어보면 현재 그들은 중국 전체를 통틀어 약 430만 명(1982년)에 지나지 않으나, 그들의 역사적 활동을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실은 만주족 자체가 남방 통구스 諸語를 사용하는 종족들을 근간으로 하여 형성된 하나의 특유한 민족적 복합으로 간주되고 있다.²⁰⁾

현재 통구스·만주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이른바 통구스족)은 동시베리아의 아무르강(黑龍江)을 경계로 그 북쪽에 에벤키족이 예니세이강과 오호츠크海 사이에, 그밖에 동부시베리아의 넓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르강 남쪽의 연해주 일대에는 나나이족(지난날의 호칭은 골디족)·오로치족·우리치족·우데헤족·네기달족·오록코족(현재의 호칭은 율타족) 등이 살고 있다. 현재 야쿠트 자치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는 야쿠트족은 바이칼호 연안지방에서 북쪽의 레나강 중류지역으로 이주했는데, 그 원주민의 언어는 통구스 계통의 그것이다. 이처럼 통구스족은 고아시아족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동시베리아 일대에서 거주지역이 크게 축소된 채 소수의 인구 밖에는 남아 있지 않으나, 고대에는 만주지방을 대표하는 족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통구스족의 발상지에 대해서는 만주설·알타이 남부설·華中說 등이 있고 또한 시베리아 동부지역으로 이동해 간 시기에 대해서도 B. C.

19) 李光奎의 대담 발언(千寬宇 편, 《韓國上古史의 爭點》, 一潮閣, 1975, 129쪽).

20) 金元龍은 “이 무렵(청동기시대)의 요령 지방 주민은 만주족이 주간이 되고 거기에 몽고족, 漢族의 피가 섞인 통구스족이었다. 문헌에 나타나는 고구려족의 前身으로서의 예맥족은 이 요령 지방의 특히 요동 以東 지역의 主人이었으며...”(《韓國考古學概說》 제3판, 一志社, 1986, 70쪽)라고 했으나, 당시는 ‘만주족’이란 개념이 생기기 훨씬 이전이었다. 주지하듯이 ‘만주’라는 명칭 자체가 만주족 최초의 지배자인 누루하치시대(16세기 말~17세기 초)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만주족 그 자체는 통구스족, 고아시아족, 漢族 등이 복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민족(ethnos)으로 형성된 매우 드문 事例에 속한다.

2000년대로부터 A. D. 10세기경까지로 보는 등 여러 가지로 엇갈린 설이 있다.²¹⁾ 현재로서는 바이칼호 부근에서 발생했다는 러시아 학자들의 견해가 가장 유력한 실정이다. 즉 아끌라드니꼬프(A. P. Okladnikov)는 바이칼호 서쪽설을, 레빈(M. G. Levin)은 그 동쪽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주의를 요하는 것은 통구스족 화중 기원설이 일찍이 중국학자들에 의해서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주장된 학설이라는 점이다. 즉 1931년 9월 일본 군부에 의해서 이른바 만주사변이 돌발하고, 그 이듬해 괴뢰국가 ‘만주국’이 성립되는 등 바야흐로 일본의 만주침략이 고조되었을 때 중국의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은 만주지방이 역사의 여명기로부터 영토상 중국의 완전한 일부라는 취지에서 많은 논문과 저서를 발표, 만주를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획책하는 일본의 만주침략을 역사적, 이론적 측면에서 비판했다. 傅斯年은 중국 고전에 나타나는 東夷族이 산둥반도와 그 남쪽의 淮水유역에 분포된 것으로 보던 종전의 견해를 만주로까지 확대 해석한 《東北史綱》(제1권 ‘古代之東北’)을 발표했으며(1932), 고고학자 李濟는 대략 같은 주장을 피력한 《역사상의 만주》(*Manchuria in History*, 1932)를 준비하여 만주사변의 발발 현장에 출장 나온 국제연맹 조사단에 제출한 바 있다. 그밖에 역사학자 馮家昇은 1935~1936년 역사잡지 《禹貢》에 원시시대로부터 周·秦시대에 걸친 기간의 만주의 사정, 중국의 만주 ‘경영’에 대한 일련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들이 동이족을 통구스족, 중국 고전에 보이는 예맥족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음은 물론이다. 동이족 곧 예맥족이 산둥·요동·한반도에 걸쳐 분포했다는 이 같은 견해는 그로부터 훨씬 뒤까지 芮逸夫·文崇一 등 중국(대만) 민족학자들에 의해서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이족의 이동설 내지 이른바 ‘동이문화권’을 신봉하는 한국인 연구자들 가운데서도 이 설을 따르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²²⁾

21) M. G. Levin, *ibid.*, pp. 162~164. 金元龍의 앞의 책(24쪽)에서 재인용.

22) 金哲堉은 金庠基의 동이족 이동설을 긍정하여 “동이의 先住地가 산둥반도지역이나 淮河유역인 중국 동해안 일대이었음이 확실한 것으로 보아, 殷이 망할 때에 그 인근 동이지역에 殷人의 大移住가 있었을 것”(〈三國時代의 禮俗과 儒敎思想〉, 《大東文化研究》6·7 합집, 1971: 《韓國古代社會研究》, 지식산업사, 1975, 184쪽)이며, “동이족 문화권에 있어서는 신석기시대 말기에는 肅慎族이

앞에서 보았듯이 신석기문화로부터 청동기문화로의 轉化를 갖고 그 문화 담당자가 바뀐 것으로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즉 김원룡은 이를 고아시아족으로부터 통구스족으로, 김정배는 고아시아족으로부터 알타이족으로 문화의 담당 종족이 교체한 것으로 보았다. 사실 인류학자 크뢰버(Alfred L. Kroeber)의 고전적 견해처럼 문화변동의 요인으로는 발명·전파·移住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에도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대의 문화를 올바르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구성요소를, ① 그 이전 시대로부터의 전통적 요소, ② 새로이 전래한 외래적 요소, ③ 새로이 육성된 그 문화 특유의 고유한 요소로 구분해 보는 것이 방법상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²³⁾ 주민교체설은 청동기문화의 여러 양상을 오로지 새로이 전래한 외래적 요소만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 위에 더욱이 이를 주민 교체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한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단정할 만한 근거가 매우 박약한 실정이다.²⁴⁾ 요컨대 신석기시대의 유문토키로부터

領導權을 쥐었다고 추측되며 그 뒤 예맥족이 영도권을 쥐었을 때에는 그 산하에 韓族이나 기타 북방으로부터 이동해 온 제부족들이 있었을 것”(같은 책, 189쪽)이라고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그는 같은 시기인 1971년 월간잡지 《新東亞》의 ‘討論·韓國史의 爭點’에서 箕子설화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고구려인은 狛인데, 맥은 처음부터 압록강 근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둥반도 일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殷이 망했을 때 은의 遺民이 맥에 포함되었을 수 있어요”(千寬宇 편, 《韓國上古史의 爭點》, 一潮閣, 1975, 72쪽)라든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肅慎族, 이것도 처음에는 華北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이 만주·한반도 지역에서 가장 優勢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뒤에 청동기문화를 가진 동이족이 화북지방으로부터 遼寧지방을 거쳐 大同江유역까지 진출한 것이 속칭 箕子조선이고 … (中略)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기자나 그 후손이 우선 山東방면의 동이에게로 망명해 왔고, 그 뒤에 동이 특히 예맥의 이동에 따라 箕子神에 대한 신앙이 한반도에까지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앞의 책, 193쪽)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23) 佐原 眞, 《日本人の誕生》(‘大系·日本の歴史’ 제1권, 小學館 Library版, 1992), 407~410·426~429쪽.

24) 하긴 앞에서 보았듯이 金元龍은 빗살무늬토기와 민패토기(無文토기)의 문화상 교체에 대해 그 문화 담당자가 고아시아족으로부터 통구스족으로 바뀌었다고는 해도 통구스족 그 자체가 신석기시대를 통해 고아시아족의 일부가 地域화된 민족일 것으로 추정했으므로, 주민 교체의 실제적인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은 듯하다. 그런 까닭으로 그는 두 민족의 對面을 “문화적, 인종적 공통 分母에서 비교적 능률적, 평화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나아가 그 근거로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에로의 변화는 이를 담당한 종족의 교체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유문토기문화 자체의 발전의 성과가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 새로이 生成된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²⁵⁾

그것은 어쨌든 현재 다수의 연구자들이 청동기시대 遼河 동쪽, 松花江 이남의 남만주 일대로부터 한반도 중부 이북지역에 걸쳐 거주했던 한국사의 주인공을 중국의 역사서에 보이는 예맥족으로 간주하고 또한 남한 지역의 韓族 역시 다만 지역차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예맥과 같은 계통의 종족으로 보고 있는 점은 주목되는 사실이다. 이 예맥족과 한족이 고조선을 비롯하여 부여, 辰國 등 많은 국가를 건설하고 뒤에 삼국의 건국세력으로 자연스레 연결되면서 한민족 형성의 직접적 계기가 마련된 것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예맥·한족에 알타이족과 통구스족 가운데 과연 어떤 종족명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는 현재 어떤 단안을 내리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를테면 한민족의 기원문제에 큰 암시를 줄 수 있는 한국어의 계통론만해도 어떤 연구자는 한국어가 알타이 제어와 친족관계에 있을 개연성이 크며 그 중 특히 통구스어와 가까운 면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빗살무늬토기와 민패토기가 서로 별개의 토기양식이면서 완전 격리가 아니라 빗살무늬토기의 민패토기式 胎土 채택, 팽이토기(서북한의 민패토기)의 아가리에 빗살무늬式 斜線무늬의 施文 등, 또 楊州郡의 水石里 집자리 유적에서의 빗살무늬문화 전통의 넷돌을 이용한 석기들의 존재 등 서로 문화요소의 교류가 있는 점으로 충분히 추측되는 것이다”(《韓國考古學概說》 제3권, 一志社, 1986, 58~59쪽)라고 하여 청동기문화에 전통적 요소, 外來的 요소, 고유의 요소가 混在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 25) 田村晃一, 〈朝鮮半島とその歴史的展開 1. 先史時代と古朝鮮〉(三上次男·神田信夫 공편, 《東北アジアの民族と歴史》, 山川出版社, 1989), 303쪽. 그는 한국의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가 시베리아 토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같은 책, 302쪽). 사실 러시아의 고고학자들도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유적을 둘러 본 메드베제프(German Medbedeb)는 “한반도 출토 초기 신석기시대 토기들은 시베리아 토기들과 별로 공통점이 없어 보인다”고 했고(《東亞日報》, 1991년 3월 20일字), 한편 바이칼지방의 각종 유적을 답사한 李鮮馥도 “바이칼호 연안의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각종 유물과 유구는 우리 나라 선사시대 것들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東亞日報》, 1990년 8월 24일).

몽골어와도 가까운 면이 있다고 보는가 하면, 다른 연구자는 퉁구스 제어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등 미묘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민족의 계통 문제는 앞으로 더욱 精緻한 연구가 요망되는 과제라고 할 수가 있다.

2) 고대 한민족의 문화적 여러 양상과 그 계통

(1) 민족지로서의 《삼국지》 위서 동이전과 문화권의 문제

주지하듯이 陳壽의 《三國志》魏書 동이전은 244~245년 위나라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 수도 환도성을 함락한 뒤 東川王을 추격하여 동해안의 沃沮 땅에 이르러 현지의 長老들로부터 청문한 지식과 또한 그간 辰王을 통해서 입수한 三韓사회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하여 편찬된 것이다. 이 동이전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민족 여러 국가의 중국과의 교섭 관련 기사보다는 오히려 이들 사회의 풍속 습관에 대한 民族誌的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하긴 이들 기사는 俎豆의 사용 여부나 혹은 跪拜의 예절 유무를 갖고 법속에 綱紀가 있다느니 없느니 하는 등 孔子 이래의 東夷觀에 입각해 있고, 더욱이 당시 중국인의 눈으로 볼 때 인상에 남는 기이한 것을 주로 기술하는 등 결코 본격적인 민족지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이전은 대동강유역에 樂浪郡이 설치된 이래 대체로 서력 기원 전후한 시기로부터 3세기 중엽에 걸치는 시기의 한민족의 습속에 대한 지식을 일괄하여 수록한 귀중한 기록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부여로부터 시작하여 고구려, 동옥저, 읍루, 동예, 삼한을 거쳐 倭人에 대한 기술로 끝나는 동이전에는 조금씩 양상을 달리하는 예·맥·한족 계통 군소 국가의 모습이 뒤섞여 있다. 우리들은 이 기사를 통해서 한민족의 종족적 계통이나 그 지역적 차이 내지 특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요동지방으로부터 한반도 남부에 이르는 비교적 넓은 지역에 분포 거주하고 있던 한민족 계통의 여러 국가사회는 중국으로부터 정치적·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었다. 부여가 시종일관 중국과 우호 친선관계를 유지한 반

면 고구려는 중국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어서 양국 간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동예는 때때로 중국 군현세력에 협조적이었고, 삼한 역시 246년 군현 당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까지는 辰王을 통해서 그들과 비교적 긴밀한 교섭을 유지해 왔다. 이처럼 한민족의 정치사회가 서기 1~3세기경 중국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가운데 중국의 물질 및 정신문화가 소리지 없이 침투해 들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민족의 문화적 계통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남쪽 해양을 통한 문화의 유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이른 시기부터 한반도는 남동풍이라는 계절풍과 필리핀 북부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의 모든 바다를 안고 도는 쿠로시오(黑潮) 해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인도의 벵골만에서 인도차이나반도 연안을 따라서 올라오는 동남아시아문화와 인도네시아로 올라오는 멜라네시아·미크로네시아 등지의 남태평양문화가 남중국해의 북쪽에서 쿠로시오로 갈아타고 북상, 濟州해협을 통과한 다음 한반도의 남해안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그 흔적을 남긴 것이다. 종래 민족학계에서 이른바 남방문화라는 다소간 모호한 명칭으로 불려 온 이 문화의 유제는 뒤에서 보듯이 동이전 가운데 특히 韓傳에 일부 散見되고 있다.

지난날 일본인 학자들은 한국 고대문화에 대한 연구에서 대개 한강유역을 경계로 하여 남북한이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상을 흔히 문화계통의 차이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했고, 나아가 이를 민족적 소속의 차이에 연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논자들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민족학계에서 오스트리아 빈(Wien) 학파를 중심으로 하여 유행한 文化圈(kulturkreis) 이론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했었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견해에 따르면 북한지역은 북방계인 예맥족의 문화권, 남한지역은 남방계인 한족의 문화권으로 크게 구별된다. 그러나 해방 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한국고고학의 연구성과는 이 같은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테면 외형상 크게 대립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남북한 두 지역의 고인돌을 결코 문화발전의 단계적 차이나 혹은 종족의 차이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데 불과한 것임이 입증된 것이다. 종래 남북한의 문화계통 내지 종족 二元論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어 온 고인돌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남북한 간의 지역적 차이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고, 본디 같은 계통의 것이라고 보는 인식이 기본적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기본 인식에 입각하여 주로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예맥·한족의 풍속 관련 자료를 갖고 주변 제민족의 그것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한민족의 문화계통을 분명히 밝혀 보고자 한다.

(2) 생업기반과 사회조직

동이전에 보이는 예맥족과 한족의 생업은 그 지역적 특징에 따라 실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松花江유역의 큰 평원을 무대로 한 부여나 동해안에 면한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던 동옥저는 기장·피·보리·콩·삼[麻] 등 크게 보아 잡곡류인 五穀을 재배했고, 동옥저 남쪽의 해안 및 내륙 산간지대에 점점이 분포해 있던 동예는 오곡 중에서 삼배[麻布] 재배와 누에치기에 능했다고 한다. 한편 부여는 곡물 재배 이외에도 돼지를 비롯한 목축이 매우 성했고, 동옥저는 魚鹽과 海中식물로도 유명했다. 하지만 압록강 이북의 산악지대를 무대로 하여 일찍부터 戰士국가로 성장해 온 고구려는 좋은 농토가 없어 농업생산력이 빈약했다. 고구려는 이를 수렵과 인접 사회 특히 동옥저로부터 공급을 받아 보충했다. 이 같은 예맥족 계통의 나라들에 비해 한족 계통인 삼한은 水稻 경작사회로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었다. 마한에 5월의 豫祝祭와 10월의 수확제가 있었다거나 변진한이 오곡 외에 벼를 잘 재배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크게 보아 만주로부터 한반도 중부 이북지역에는 북방 계통의 목축민문화·잡곡재배민문화·수렵민문화·漁撈민문화가 혼재해 있었고, 한반도 남부지역은 압도적으로 수도 경작에 의존하는 사회가 성립되어 있었다. 남한지역이 수도 경작 중심의 사회로 발전하게 된 것은 벼가 본디 동남아시아에서 기원한 작물이고 또한 중국 江南지방(長江 이남)을 거쳐 한반도 중부 이남의 서해안지방으로 전파해 온 경로로 미루어 볼 때 자연스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는 물론 종족이나 문화계통의 차원에서 논의할 대상은 아니다.

당시 한민족은 오늘날의 자연취락에 상당하는 ‘邑落’을 단위로 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실태는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동예의

독특한 영역의식은 종족의 계통문제와 관련하여 비교해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동이전에 의하면 동예의 풍속은 山川을 중시했는데, 거기에는 각기 ‘부분’이 있어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生口나 소·말로써 배상케 하는 責禍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이 동예의 습속은 沙流 아이누족의 그것을 연상시킨다. 이 족속 역시 하천유역을 中核으로 하는 영역의식이 있어 하천의 양쪽을 구획하는 산의 가장자리가 바로 영역과 생활의 場인 *iwor*의 경계가 되어 있으며, 이처럼 같은 유역의 거주민이 강한 同類의식으로 결합하여 하천의 이름을 갖고 자기의 호칭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주변에 거주하는 통구스족에게서도 발견된다고 한다.²⁶⁾

동이전에는 거주하는 가옥에 대한 기술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겨우 마한사람들이 草屋土室에 거주하고 있다는 정도의 기술이 보일 뿐이다. 그런데 고구려의 경우 큰 창고는 없으나 집집마다 桴京이라는 이름의 조그만 창고를 갖고 있다는 기사가 주목된다. 이 부경으로 짐작되는 것이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 보이고 있으며, 신라와 가야의 토제품에서도 역시 볼 수가 있다. 이것은 평면 방형의 高床式 창고에 해당되는데, 현재 학계에서는 그 유래를 둘러싸고 북방설과 남방설이 대립되어 있다. 일찍이 1930년대에 이나바(稻葉岩吉)는 북방설을 주장했지만, 그 뒤 김원룡은 이를 남방식으로 보았다.²⁷⁾ 본디 고상식 창고는 벼농사(稻作)와 관련된 곡물창고로서 중국에서는 신석기시대 이래 덩고 습기가 많은 화남·長江유역에서 출현하여 각지로 전파되었다.

26) 泉 靖一, 〈沙流アイヌの地縁集團における IWOR〉(《民族學研究》16권 3·4호, 1952), 29~45쪽. 蒲生正男·大林太良·村武精一 공편, 《文化人類學》(角川書店, 1967, 368~394쪽) 所收.

27) 金元龍, 〈新羅家形土器考—古代 韓國에 있어서의 南方的 要素—〉(《金載元博士華甲紀念論叢》, 乙酉文化社, 1969; 《韓國美術史研究》, 一志社, 1987) 참조. 한편 民族誌 자료에 의거하여 중국 남방 및 中原系의 高床式창고가 稻作과 관련된 곡물창고인 데 비해 북방계는 근본적으로 도작과는 관련이 없는 창고로, 동북아시아·북아메리카의 수렵·채집민족으로부터 스위스·스웨덴 등 유럽 산간 부까지 광범한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 유의하여 고상식창고를 漢文化가 침투하기 이전부터 존재한 북방 土着의 문화요소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淺川滋男, 〈高倉の民族考古學〉(直木孝次郎·小笠原好彦 공편, 《クラと古代王權》, ミネルヴァ書房, 1991) 참조.

이에 비해 좁고 건조한 화북지방에서는 穴倉(일명 저장혈)을 사용했는데,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충남 부여군 초촌면 松菊里의 집자리유적에서 그 실례가 발견된 바 있다. 이 점을 근거로 하여 한국에 水田 도작이 전래되면서 화북계통의 저장법이 전해졌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²⁸⁾

그런데 住居와 관련하여 동이전의 동옥저 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즉 함흥평야를 중심으로 한 남옥저로부터 800여 리 북쪽에 위치한 북옥저(일명 置溝濃)의 사람들은 바로 인접한 읍루 사람들이 여름이면 배를 타고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하므로 이를 두려워하여 매양 여름철이면 山巖의 깊은 굴 속에서 지내면서 수비태세를 취하다가 겨울에 얼음이 얼어 뱃길이 막히게 되면 산을 내려와 본래의 촌락에 거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이전에는 북옥저 사람들의 여름철 산속 동굴 주거를 읍루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상 읍루족의 후예가 아닐라고 짐작되는 길리아크족 자체가 여름 주거와 겨울 주거를 달리했다는 민족학적인 조사 보고가 있다.

즉 길리아크족은 여름과 겨울의 생활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 定住的인 집락을 만들어 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름철 주거와 겨울철 주거가 별도의 장소에 마련된다고 한다. 이처럼 여름과 겨울에 따라 주거지를 달리하는 생활은 길리아크족 이외에도 우리치족·네기달족·오로치족·나나이족·사할린의 아이누 등 통구스계통의 족속들이나 일부 고아시아족에게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²⁹⁾

종래 민족학계에서는 남방계 제민족이 雙系的 내지 모계적 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데 비해서 북방계 제민족은 현저히 부계적 혈연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고, 또한 동남아시아지역의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씨족 外婚制를 결여하고 있는 데 반해서 북방계 제민족은 길리아크족을 제외한 일부 고아시아족을 논외로 한다면 대체로 씨족 외혼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사실 통구스

28) 佐原 眞, 《日本人の誕生》(『大系・日本の歴史』 제1권, 小學館 Library版, 1992), 288·313쪽.

29) 荻原眞子, 〈民族と文化の系譜〉(三上次男·神田信夫 公편, 《東北アジアの民族と歴史》, 山川出版社, 1989), 93~96쪽.

諸語 중 특히 몽골어에 부계 친족집단을 나타내는 ‘할라(hala, 哈拉)’가 사회의 족적 구성의 기본이 되어 있고, 씨족 외혼제는 퉁구스 제족에 있어서 가장 오랜 제도의 하나이다. 동이전에는 동예사회가 ‘동성불혼’이라고 했는데, 이는 바로 외혼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여사회는 ‘兄死妻嫂’ 하여 흉노와 습속이 같다고 했는데, 사실 이 레비레이트(levirate)혼이야말로 북방계의 여러 민족 사이에 널리 행해진 습속이었다. 한편 고구려 조에는 壻屋制度가 기술되어 있는데, 이 같은 혼인습속은 이른바 ‘일시적 妻訪婚(temporary matrilocal marriage)’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반드시 모계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러한 혼인관습은 중국 남부의 ‘不落夫家婚’이라 불리는 것과 매우 비슷하여 남방적 문화에 유래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³⁰⁾ 하지만 중국 正史 열전에는 烏桓·鮮卑·鐵勒 등 몽골종족 가운데 튀르크계로 분류되는 유목민사회에도 이 같은 혼인관습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아울러 서옥 자체는 고아시아쪽에 속하는 동부 시베리아의 유카기르족에서도 찾아 볼 수 있고 또한 北海島 아이누족의 오래된 서사시를 보면 이 같은 습속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어 고구려의 혼인습속이 동북아시아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³¹⁾

동이전 마한 조에는 成年式에 따르는 일종의 시련 행사로 생각되는 기사가 보인다. 즉 나라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관청에서 성곽을 축조할 때 용감하고 건강한 젊은이들이 모두 등가죽을 뚫어 큰 노끈으로 꿰맨 다음 한 발 째 되는 나무를 짊고 온종일 흥얼거리며 힘을 쓰는데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데, 사람들은 이 작업을 권하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健兒로 인정 받는다고 한다. 하긴 이 기사는 손진태·이병도 등의 견해처럼 지계를 지고 노동하는 모습을 중국인 견문자가 오해한 데서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³²⁾

30) 江守五夫, <日本の家族慣習の一源流としての中國北方民族文化>(江守五夫·大林太良 등 공편, 《日本の家族と北方文化》, 第一書房, 1993), 25쪽.

31) 大林太良, 《邪馬臺國—入墨とポンチヨと卑彌呼—》(中公新書, 1977), 133~134쪽.

32) 孫晉泰, 《韓國民俗·文化散考》(《孫晉泰先生全集》 제6권, 太學社, 1981), 335~336쪽.

李丙燾, 《韓國史·古代篇》(乙酉文化社, 1959), 311쪽.

林建相, 《조선의 부곡제에 관한 연구》(평양 과학원출판사, 1963), 106쪽.

다만 《후한서》 동이전 韓 조에는 이 같은 노동 기사 앞에 소년이 ‘築室’을 갖고 있다고 했으며, 이로 미루어 볼 때 남자집회소 내지 청소년집회소의 존재는 충분히 상정할 수가 있다. 민족학자들은 未開社會 정치조직의 기구로 혈연관계와 지연관계 외에 협동체관계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 협동체는 대개性和 연령에 기초한 연령단체인 경우가 많다. 일찍이 미시나(三品彰英)는 《삼국지》와 《후한서》의 이 기사를 갖고 신라 화랑집단의 원류로 포착한 바 있다. 나아가 그는 이 같은 한족의 남자집회조직은 문화 요소로 볼 때 만주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방 해양의 여러 민족과 결부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한족이 ‘남방문화권’에 속하는 것이 명료하다고 못박았다.³³⁾ 그러나 조금 후대에 속하는 《구당서》 및 《신당서》 동이전 高麗(고구려를 가리킴) 조에는 결혼하지 않은 민간의 자제들이 모여서 주야로 독서와 誦經, 활쏘기를 했다는 큰 집 扁堂의 존재에 대한 기술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李基白의 견해처럼 이 경당은 화랑도와 마찬가지로 원시 미성년집회에 그 기원이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고구려에도 남자집회가 있었음이 거의 분명하다면 미성년집회소를 기준으로 하여 고대 한국의 문화권을 남북으로 양분하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³⁴⁾

(3) 농경의례와 사회습속

수도경작을 기반으로 한 우리 나라 남부의 문화 複合이 동남아시아의 그것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다. 이는 수도 농경문화의 전래에 수반하여 중국 강남지방에서 수도작 농경문화와 관련이 깊은 신앙이나 풍속 습관이 전해진 데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벼의 기원 내지 전승에 새가 벼씨를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는 모티브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긴 ‘舊三國史’에 의거한 李奎報의 〈東明王篇〉에는 망명길에 오른 주몽에게 神母가 비둘기를 시켜서

33) 三品彰英, 《新羅花郎の研究》(‘朝鮮古代研究’ 제1부, 三省堂, 1943), 제1장 제2절 참조.

34) 李基白, 〈高句麗의 扁堂－韓國 古代國家에 있어서의 未成年集會의 一遺制－〉(《歷史學報》35·36 합집, 1967: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96), 91~102쪽.

보리종자(麥子)를 전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 신모는 농업신인 여신으로 생각되며 오리엔트 전지역에서는 비둘기가 신모의 신성한 새로 등장한다고 한다.³⁵⁾ 그러므로 곡물의 전승에 새를 등장시키는 것이 비단 동남 아시아지역 주민만의 고유한 발상은 아닌 것으로 짐작된다.

동이전 마한 조에는 매년 5월 씨를 뿌린 다음 귀신을 제사하는 歌舞 축제를 열고 10월 추수한 뒤 역시 이를 반복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오늘날까지 남한지역에 남아 있는 벼농사와 관련된 마을 축제로 대표적인 것이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특히 호남지역에서 행해지는 이른바 ‘전라형’줄다리기에서는 시합이 끝나면 사용했던 줄을 가져다가 堂山木에 감는 ‘당산 입히기’라는 절차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를 祭典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긴다. 이 같은 행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서 농악대의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노는 것으로 밤을 지낸다고 한다.³⁶⁾ 사실 이러한 행사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지방에도 분포되어 있으며, 그 특징도 서로 공통하고 있다.

《禮記》王制篇에서는 동이족의 대표적인 습속을 被髮과 文身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습속은 중국 강남지방의 옛 吳越 계통의 주민 사이에서 현저한데, 《史記》朝鮮傳에는 燕에서 활동하던 衛滿이 고조선으로 망명해 올 때 ‘魃結(상투를 튼 두발)’하고 ‘蠻夷服’을 입고 있었다고 했다. 동이전 마한 조에도 ‘魃頭露紒’라 하여 역시 상투머리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왜인 조에도 남자는 모두 ‘露紒’하고 아울러 黥面 문신하며 부인들은 ‘被髮屈紒’한다고 특별히 기술되어 있다. 한편 마한 조에는 남자들이 때때로 문신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으며, 변진한 조에도 倭와 가까운 까닭에 역시 문신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1948년 서부 시베리아 즉 러시아(카자흐스탄)·몽골·중국의 세 나라 국경지대인 우코크 고원의 파지리크 2호 무덤에서 온몸에 문신을 새겨 놓은 미이라가 발견되어 주목을 끈 바 있다. 그렇지

35) 金哲堉, 〈東明王篇에 보이는 神母의 性格〉(《柳洪烈博士華甲記念論叢》: 《韓國古代社會研究》, 지식산업사, 1975), 35~43쪽.

36) Christian Deschamps, 〈韓國의 줄다리기〉(《在歐 한국학회 제6차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82), 329~335쪽. 但 徐大錫, 《한국신화의 연구》(集文堂, 2001, 527~528쪽)에서 재인용.

만 남한지역의 문신은 시베리아보다는 역시 동남아시아, 남중국, 일본 등지와 한층 강한 밀집도를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³⁷⁾

한편 변진 조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돌로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변형시키는 습속이 있으므로 진한 사람들이 모두 編頭라고 기술되어 있다. 일찍이 이 같은 頭蓋 가공의 습속이 옛 인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본 논자도 있었으나, 실은 북 코카사스인의 무덤이나 훈족과 튀르크족 그리고 후기 선사시대의 멕시코유적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보여 세계적으로 널리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만큼 삼한 사람들의 편두 습속의 원류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³⁸⁾ 다만 민족학자 오오바야시(大林太良)는 편두의 문화적 계통을 어찌면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미 기원 전 5세기 경에 두개 가공이 행해지고 있던 것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보고한 바 있다고 하며, 7세기 전반 玄奘의 《大唐西域記》에도 屈支法沙에 이 같은 습속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고학적 자료로 볼 때 청동기시대의 Don-Man-yeh 문화 이래 사르마트나 훈족의 무덤에서 이것이 인정되며 아이누족이나 골디족(나나이족)에게서도 그것이 옛보인다고 한다.³⁹⁾

동이전 왜인 조에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동물의 뼈를 지저吉凶을 점치는 骨卜의 습속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부여 조에는 군사적 행동을 취할 때는 하늘에 제사하는데, 이때 소를 죽여 굽을 보아 길흉을 점쳤다고 한다. 즉 굽이 벌어지면 흉조로 여겼고 합쳐지면 길조로 여겼다는 것이다. 부여의 그것은 골복과는 차이가 있으나, 일찍이 경남 창원 熊川의 조개 무덤에서 사슴의 복골이 발견된 이래 김해 府院洞 주거유적에서 역시 출토된 바 있고 최근에는 경북 경산시 林堂洞 저습지의 한 유적에서 중국 화폐인 五銖錢과 함께 발견된다거나 경남 사천 勒島유적에서는 다량으로 발견되는 등 변·진한사회에서도 이 같은 습속이 널리 행해졌음이 입증된 바 있다.

37) 金貞培, 〈韓國에 있어서의 南方文化論〉(《在歐 한국학회 제6차 학술회의 白山學報》 9, 1970 :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90쪽.

38) 金貞培, 위의 글, 90~91쪽.

39) 大林太良씨의 敎示에 의함.

이 골복은 동유럽에서 중앙아시아·북부아시아에 걸쳐 널리 행해진 습속이었으므로 일반적으로 북방계의 문화요소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만 중국에서는 이미 龍山문화 단계에서 그것이 행해졌고 특히 殷(商) 왕조에서는 龜卜·골복으로 祖靈의 神意를 점치는 습속이 크게 유행했으므로, 이 중국 기원의 습속이 전해졌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⁴⁰⁾

옹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洗骨葬은 複葬 혹은 二重葬(Secondary burial)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이 풍속은 동옥저 조에 구체적인 기사가 보인다. 이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했다가 뒤에 뼈만을 추려서 가족 공동의 木槨에 다시 안치했다고 한다. 1983년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의 한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집단묘지는 세골장법에 의해 약 40여 명을 한 구덩이 안에 매장한 것으로 판명되어 학계의 주목을 끈 바 있다. 현재 세골장의 풍속은 전라도 해안 및 서해안 섬지방에 이른바 草墳 혹은 風葬으로 남아 있다. 이 세골장과 관련하여 대만의 민족학자 凌純聲은 중국 長江 중류의 洞庭湖 지구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역시 동남아시아 일대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 즉 세골장은 해류를 따라 남중국 혹은 류큐(琉球), 아미미(奄美) 군도를 거쳐 한반도 해안지대에까지 퍼진 것으로 짐작된다.⁴¹⁾ 다만 1930년 시베리아 연해주에서 민속조사에 종사한 바 있는 능순성이 지적하듯 고아시아족에 속하는 유카기르족이나 길리야크족이 근대에도 옹관을 사용했고, 松花江 하류의 赫哲族(통구스 계통의 나나이족)의 세골장이 동옥저의 그것과 똑같은 점에 주목한다면 한국 고대의 세골장을 남쪽 혹은 북쪽의 어느 한쪽으로부터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⁴²⁾

이상으로 한민족의 문화계통을 주로 《삼국지》 동이전의 민속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 농경문화의 기층에는 이른바 남방계

40) 大林太良, 《邪馬臺國》(中公新書, 1977), 52~57쪽.

41) 프랑스 뒤르켐학파의 종교사회학자인 에르츠는 인도네시아지방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二次葬의 의미를, 즉 死者의 뼈를 모아 가족 納骨所에 넣어두기까지의 屍身 처리과정을 死者의 영혼이 거쳐가야 할 現世에서 저승에 이르는 旅路를 물질적인 상징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 Robert Hertz, *Death and the Right Hand*(Routledge & Kegan Paul, 1960), pp. 81ff.

42) 金貞培, 〈韓國의 甕棺 解釋에 對한 一小考〉(《古文化》5·6 합집, 1969 :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234~235쪽.

통의 요소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역시 북방계통의 문화요소가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끝으로 한민족의 계통 문제를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긴요한 과제라고 할 신앙과 종교면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4) 샤머니즘의 세계관

주지하듯이 샤머니즘은 만주·몽골·시베리아에 널리 퍼져 있는 퉁구스족 및 고아시아족의 특유한 세계관을 반영한다. 퉁구스족은 만주족 형성의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시로꼬고로프는 만주족의 사회구성에 대한 연구의 결론부에서 샤머니즘이야말로 만주족 사회조직의 基底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로 샤머니즘을 떠나서는 만주족의 씨족조직은 존재할 수 없다고까지 강조한 바 있다.⁴³⁾ 하긴 샤머니즘은 전세계에 걸쳐 각양각색의 유형을 띠고 분포되어 있다. 그렇지만 동북아시아대륙이 그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한반도의 고대문화가 동북아시아대륙 샤머니즘적 문화의 亞種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적 전형으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은 신화와 巫俗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삼국지》동이전 변진 조에는 사람이 죽으면 큰 새의 날개를 부장하는데, 그 뜻은 죽은 이로 하여금 하늘로 날게 하도록 함에 있다고 했다. 이는 사람의 生靈이나 샤먼(무당)의 수호 神靈이 각종의 새 모양을 하고 나른다는 북시베리아에 널리 퍼져 있는 샤머니즘적 신앙과 서로 공통되는 점이다. 한편 마한 조에는 天君과 蘇塗에 관한 잘 알려진 기사가 실려 있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즉 마한사람들은 귀신을 믿어 國邑마다 각기 한 사람을 정해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또한 나라에는 각기 別邑이 있어 소도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큰 나무를 세워 방울과 북을 매달고 귀신을 섬겼으며 도망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밖으로

43) S. M. Shirokogoroff, *Social Organization of the Manchus: A Study of the Manchu Clan Organization*(Shanghai, 1924).

大間知篤三·戸田茂喜 공역, 《滿洲族の社會組織》(刀江書院, 1967), 228쪽.

둘러보낼 수 없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고구려 조에 10월에 행하는 國中大會 때 나라 동쪽의 큰 굴속에 있는 隧神을 맞아다가 나라 동쪽 위에서 제사지낼 때 神坐에 나무로 만든 수신을 놓아둔다고 한 점이다.

이 천군이나 소도 혹은 나무로 만든 수신은 바로 동북아시아대륙 샤머니즘에 입각한 종교문화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19세기 중엽 李圭景은 민속으로 전해지고 있던 城隍(서낭)신앙의 연원을 삼한시대의 소도신앙에서 찾았거니와(《五洲衍文長箋散稿》‘華東淫祀辨證說’), 1930년대 초에 손진태는 소도를 민속으로 남아 있는 ‘숫대’의 원류로 보았고, 나아가 돌을 쌓아 놓은 제단 모양의 仙王(서낭)堂이 만주·몽골의 오보(obu, 沃博·鄂博)와 형태 및 기능이 비슷한 점에 주목한 바 있다. 이 오보는 자연석을 円錐모양으로 쌓아 올린 다음 그 중앙에 神杆을 세우고 柳條를 꼬아 놓은 모습을 하고 있다. 사실 돌무더기에 나무를 세워 꼬는 습속은 퉁구스족 사이에서는 일반적이다. 골디족(나나이족)은 신간과 남녀의 木偶神, 나무에 새긴 鳥杆을 한 곳에 모아 두고 있으며, 그와 인접한 오로치족은 상단부에 사람 얼굴을 조각한 나무 기둥 세계와 나무에 새긴 오리 네 마리를 신간의 橫木에 고정시켜 세워 두고 있다. 이와 매우 비슷한 것은 大興安嶺 동남부에 살고 있는 오로촌족이나, 오비강과 에니세이강 방면에 거주하는 핀(Finn)족 계통의 오스치야크족에게서도 보인다.⁴⁴⁾

신화만큼 고대인의 사회적 생활여건과 의식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달리 없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신화는 문헌기록으로 전해지는 건국신화와 무속 제전에서 口碑로 계승되는 무속신화로 크게 구별되는데, 여기서는 고조선의 檀君神話를 비롯한 고구려의 朱蒙신화 그밖에 신라·가야의 건국신화에 국한하여 신화의 구성 요소와 그 문화적 계통을 살펴보기로 한다.

단군신화가 곱을 숭배하고 있던 어떤 족단의 샤머니즘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건국신화라는 데는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지상에 내려온 桓雄이 천상의 세계를 주관하는 天帝 곧 태양신의 아들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천상계와 지상계를 잇는 매개체가 산꼭대기의 樹木으로 설정되

44) 秋葉 隆, <朝鮮の民俗に就いて—特に滿蒙民族との比較—>(京城帝大文學部 편, 《朝鮮文化の研究》, 朝鮮公民教育會, 1937), 33~56쪽 특히 46~51쪽.

어 있는 것은 모두 동북아시아대륙의 전형적인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동굴 속에 살면서 사람이 되고자 했던 곰이 환웅과 결합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신화의 내용은 일반적인 곰 숭배 차원을 넘어서 일종의 獸祖 모티브까지 상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⁴⁵⁾

그런데 동시베리아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종족은 곰에게는 특별한 정령이 들어있다고 믿어 이를 숭배한다. 그들 중에는 절대로 곰을 먹지 않는 족속이 있는가 하면 길리야크족처럼 곰 축제를 거행하는 경우도 있다.⁴⁶⁾ 일찍이 오카강 계곡에 있는 브라트스크 근처에서는 돌에 곰의 頭像을 새겨 넣은 예술품이 발견된 일이 있는데,⁴⁷⁾ 2000년 아무르강 하류 하바롭스크주 울치區에 있는 수추섬의 신석기시대 주거유적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 양국 공동 발굴조사에서도 곰 모양을 한 매우 세련된 동물상이 출토된 바 있다.⁴⁸⁾ 이 아무르강 유역은 특히 곰 숭배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서 특별히 畏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곰 이외에도 범과 물범(鯨)이 있으나, 삼림의 주인, 짐승의 주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역시 곰이다. 또한 동물과 인간과의 혼인이 씨족 혹은 민족의 기원과 결부되어 있는 전승이 현저한 지역도 바로 이곳이다. 아무르강의 몇몇 지류와 우스리강 유역으로부터 시호타·아린산맥에 걸쳐 거주하는 퉁구스족 계통의 우데헤족(《高麗史》에는 ‘兀狄哈’으로 표기됨)의 기원 전승에는 곰과 범이 등장하고 있어 환웅과 熊女와의 결혼 모티브와 매우 깊은 친연관계를 보여준다.⁴⁹⁾

신화 연구의 중요한 과제는 신성관념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의미에

45) 金烈圭, 《韓國의 神話》(一潮閣, 1976), 21~27·48~58쪽.

46) Georg Nioradze, *Der Shamanismus bei den Siberischen Voelkern*(Strecker und Schroeder in Stuttgart, 1925).

李弘植 譯, 《西伯利亞諸民族의 原始宗教》(서울신문사 출판부, 149), 76~78쪽.

47) A. P. Okladnikov, 〈신석기시대 동시베리아 種族의 곰 숭배사상〉(《소련고고학지》 14권, 1950).

金貞培, 《韓國民族文化의 起源》(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에 國譯 收錄(같은 책, 236~237쪽).

48) 국립문화재연구소, 《러시아 아무르강 하류 수추섬 신석기시대 주거유적 발굴조사보고서-제1차 한국·러시아 공동발굴조사보고서-》(문화재청, 2000) 참조.

49) 大林太良, 〈朝鮮의 檀君神話とツングース의 熊祖神話〉(東京大學《教養學科紀要》 7, 1975), 71~87쪽.

서 주몽신화의 주인공이 햇빛에 감응하여 알의 형태로 태어났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에 대한 미시나(三品彰英)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주몽이 햇빛에 감응하여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은 몽골·만주에 널리 퍼져 있는 이른바 ‘感精型’ 요소로 분류되며, 한편 알의 형태로 출생한 것은 ‘卵生型’ 요소로, 이는 文化境域(Culture-area)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인도차이나·대만·중국 연안일대의 남방 해양 계통의 문화요소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주몽신화는 그 자체로 북방적 요소와 남방적 요소의 복합형이라는 것이다. 한편 그는 예맥족인 고구려가 난생신화와 접하게 된 역사적 계기로서 漢族이 아직 황하·장강(揚子江) 하류유역을 점령하기 이전에 이 지방을 점거하고 있던 동이족과 ‘百越’로 통칭되던 인도차이나 계족과의 접촉 교섭을 상정하고, 어쩌면 徐夷의 옛 땅인 徐州가 남북을 연결하는 링크(link)적 존재가 아니었을까하고 추측한 바 있다.⁵⁰⁾

신라의 赫居世신화나 脫解신화, 금관가야의 首露신화도 유형상으로 보면 난생형에 속한다. 다만 탈해신화에는 남방 해양 계통의 요소가 짙어 주목된다. 즉 주인공의 어머니가 바다 용왕 계통으로 되어 있다든지 알의 형태로 태어나자마자 껍데기에 담겨져서 바다 위에 버려져 표류한 끝에 신라의 동쪽 해안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러하다. 이 같은 신화의 줄거리는 버마(현 미얀마)의 파라운 설화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바 있어 일찍이 태평양 주변에 전파된 공통문화의 잔존으로 해석하려는 논자도 있다.⁵¹⁾ 그렇지만 신생아의 遺棄 모티브는 汎세계적으로 분포가 클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의 민간신앙에도 유기 장소가 해변 이외에 산꼭대기, 숲 속 등으로 달라지면서 그대로 남아 있다는 의미에서 탈해신화를 굳이 남방 해양 계통과 결부시킬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은 실정이다.⁵²⁾

50) 三品彰英, 《神話と文化境域》(1948: 《神話と文化史》 ‘三品彰英論文集’ 제3권, 平凡社, 1971), 378~381·498~499쪽 및 530~531쪽.

51) 松本信廣, 〈古代傳承に表われた車と船—徐偃傳說と造父說話との對比—〉(《日本民俗學》 1권 4호, 1954: 《東亞民族文化論攷》, 誠文堂新光社, 1968), 247~265쪽. 西歐학자들은 이같은 설화를 ‘coffre flottant’형으로 命名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씨 역시 卵生型에 속하는 徐偃王 전설을 남방의 해양 계통 전설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52) 金烈圭, 《韓國의 神話》(一潮閣, 1976), 188~189쪽.

앞에서 곶을 조상으로 여기는 단군신화의 모티브가 곶에 대한 지극한 숭배에서 우리나라의 것으로 추정할 바 있다. 그런데 곶 숭배로 유명한 아무르강 유역일대가 동북아시아대륙에서는 몽골과 더불어 손꼽히는 岩刻畫의 분포지대인 점을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한국신화의 기층에는 어로 및 수렵문화를 배경으로 한 동굴문화를 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⁵³⁾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암각화가 20여 곳 이상에서 확인되었는데, 새김 대상에 따라 크게 동물상과 器物 도형상, 생활상으로 분류된다. 그 중 경남 울주군(현 울산광역시) 언양읍 대곡리 盤龜臺의 암각화에는 사슴·고래·범·멧돼지 등 동물 모양이 193점이나 되며 그밖에 인물상이 14점, 어로 및 수렵 도구상이 11점이 된다. 반구대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기물도형상 암각화 중에서 劍鋒무늬계는 사후세계의 안녕을 비는 청동기시대 인간들의 來世觀을, 幾何무늬계에서는 농경사회의 풍요를 비는 신앙을 각각 엿볼 수 있다.⁵⁴⁾ 이 같은 한국의 암각화는 그 주제로 볼 때 동시베리아·몽골지방의 그것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맺는말

종래 한국사학계에서 민족의 계통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은 오랜 세월 單一 민족국가로 영위해 온 데 말미암은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韓國史를 통해서 보면 소수민족집단과의 공존이라는 미묘한 정치적·사회적 문제와 씨름해 본 적이 없다. 그리하여 외교관 출신의 어떤 미국인 저술가는 한국이 소수 민족을 거느려 본 역사적 경험이 全無했던 까닭으로 해서 결국 정치적 문제 해결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고까지 지적한 바 있다(Gregory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이 같은 관점에서의 논의가 과연 옳은 것인지

53) 金烈圭, 위의 책, 125쪽.

54) 張明洙, 《韓國岩刻畫의 文化相에 대한 研究—신앙의 전개양상을 중심으로—》(仁荷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1) 참조.

어떤지는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단일민족국가라는 일종의 자부심이 역사 연구자들로 하여금 한민족의 형성과정 내지 계통에 대해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만큼 방치해 온 요인이 된 것만은 사실이 아닐까 하고 생각된다.

지난날 한민족 형성과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남북한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즉 한국학계에서는 혼혈론 이외에도 주민교체설이 유력하게 대두한 반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온 북한학계는 한민족 單血性論을 제기하여 이미 공식견해로 정착된 바 있다. 하지만 한민족이 선사시대 이래 외부세계로부터 전혀 수혈을 받지 않은 채 현재까지 連綿히 이어져 왔다는 이 단혈성론은 집단유전학의 상식으로 비춰볼 때 납득이 되지 않는 명백히 잘못된 견해이다. 한편 구석기시대로부터 신석기시대로 다시 청동기시대로 轉化할 때마다 한국사의 주인공이 바뀐 것으로 생각하는 주민교체설에도 약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는 문화양상의 변화를 갖고 곧바로 종족의 교체에 의한 것인 양 보는 데서 나온 것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문화란 대개 장기간에 걸쳐 발전해 온 사회 내부의 자체 문화가 외부세계로부터 충격 내지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전면적인 주민 교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 역사적 전환기에 새로운 주민의 流入이 있었을 개연성은 매우 크다. 결국 한민족 형성과정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비록 소박한 관점이기는 하지만 혼혈론 쪽이 옳다고 생각된다.

한민족 형성의 진정한 출발점은 국가 성립기인 청동기시대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역사서에 보이는 濊貊族과 韓族이 바로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 이들 종족은 고조선을 비롯하여 부여·진국 등 국가를 건설했으며 뒤에 삼국의 건국세력으로 거의 고스란히 연결되었다. 삼국 항쟁기에 고구려·백제·신라가 각기 독자적인 민족의식을 갖고 투쟁했다는 손진태의 주장은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이윽고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합됨으로써 한민족 형성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 학계의 지배적인 통설이다. 이 예맥족과 한족은 민족학계에서 말하는 통구스족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긴 통구스족 대신에 알타이족을 거론하는 연구자도 있으나, 세계학계의 일반적인 관행으로는 '통구스'가 종족명으로 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예맥족과 한족의 문화계통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한민족의 계통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기준이 된다. 이 같은 목적에서 대체로 서기 1~3세기 경 예맥족과 한족의 민족지로서의 가치가 높은 《三國志》魏書 東夷傳의 민속 관련 기사를 검토해 보았다. 즉 이를 생업기반과 사회조직, 농경의례와 일반적인 사회습속 그리고 신앙과 종교의 몇 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을 摘出해 본 결과 압도적으로 동북아시아대륙의 북방계통 문화와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긴 일찍부터 水稻作 농경문화가 정착한 남한 지역에 있어서는 동남아시아 혹은 남태평양지역의 이른바 남방계통의 문화 요소가 일부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는 결코 문화발전의 단계적 차이나 혹은 종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어디까지나 지역적인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李基東〉

3. 문헌에 보이는 한민족문화의 원류

우리 민족은 한글을 제정하기 이전 중국의 한자를 빌어 문자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시기는 고조선 시대까지도 소급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삼국시대까지 소급되는 문자 자료는 약간의 금석문과 목간자료 뿐이며, 우리 문화와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하는 문헌도 고려시대에 편찬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가 가장 시대가 올라가고 그 이전에 편찬되었던 문헌들은 모두 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두 史書에 보이지 않는 上古의 사실을 전한다는 일부의 秘記들은 실제 僞書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정설이다. 이에 비해 중국의 문헌들은 일찍부터 우리 민족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였다. 특히 《史記》朝鮮列傳을 비롯한 역대 中國 正史 東夷傳이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데 불가결한 자료라는 것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先秦 문헌도 대부분 그 성립연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할 뿐 아니라 거기에 언급된 우리에게 관한 내용도 극

히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하다. 정사 동이전의 내용도 대부분 중국과 관련된 것이거나 주로 중국측의 관심대상을 중국측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었다. 때문에 중국 자료의 이용은 신중도 요하지만 그 활용도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데, 특히 신석기시대와 문명초기까지 소급될 수밖에 없는 본고의 주제를 이러한 문헌들로 탐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 같다.

한 민족과 그 문화는 고립적으로 형성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문화의 원류는 그 민족과 활동 공간을 공유하거나 또는 인접하여 생활한 여러 집단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해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그 민족의 형성에 참여한 제 집단, 종족 또는 민족이 어느 시대에 어디서 활동하였는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면, 본고도 먼저 ‘韓民族’을 구성한 제 집단에 대한 범위를 설정한 연후에 그들의 자취를 문헌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민족’을 실제 구성한 제 집단을 완벽하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高麗의 祖先으로 인식한 범위, 그리고 중국 문헌이 이 집단 또는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기술한 제 집단을 일단 ‘韓民族’ 형성집단의 범위로 간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단군조선·기자조선·韓·부여·고구려·백제·신라·발해·濊·貊(貉) 등이 바로 이 범위에 속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한국과 중국의 초기 문헌에 언급된 이들의 문화적 성격과 활동 범위를 고찰하고자 하는데, 시조 또는 건국 신화는 그 집단의 귀속 문화권을 반영한 것이므로 먼저 이 문제를 검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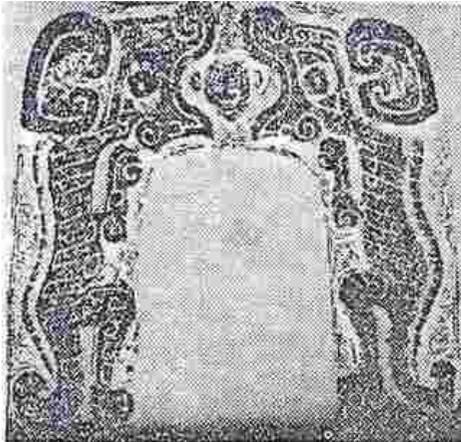
1) 곰과 호랑이 토데미즘

《삼국유사》에 전하는 단군의 건국 신화는 불교와 도교적인 요소도 첨가되었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유행한 샤머니즘적인 색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데, 이 신화의 핵심은 곰에서 化身한 여인 熊女와 天帝의 아들 桓雄의 神婚, 이들 사이에 태어난 단군의 건국이다. 이것이 동북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유행한 곰 토데미즘을 반영한 것이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곰과 함께 인간이 되려고 하였으나 금기를 지키지 못하여 인간이 되지

못한 호랑이와 인간이 된 곰이 본래 한 굴에서 생활하였다는 대목을 주목하면 이 신화는 곰 토렘과 호랑이 토렘 집단의 밀접한 교섭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까지도 호랑이를 산신으로 崇敬하는 ‘虎文化’가 한국사회에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지만, 魏書 夷傳도 濊人들이 호랑이를 산신으로 제사하는 전통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운남성에 거주하는 彝族들은 지금도 호랑이를 조신으로 신앙하는 각종 제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족은 고대 중국 서북지역에서 활동하던 羌·氐族의 후예라고 한다. 또 춘추시대 楚의 귀족 班氏의 조신 鬪穀於菟가 들에 버려져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고사도(《左傳》宣公 4년) 반씨의 토렘이 호랑이였음을 시사한다. 《後漢書》南蠻西南夷傳에 의하면 巴郡 南蠻의 조선은 4개의 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제주도 三聖穴 신화와 비슷), 그 군장 廩君이 죽은 후 혼백은 白虎가 되었으며, 巴人들은 호랑이가 인간의 피를 먹는 것으로 생각하여 인간을 호랑이에게 바치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러한 예들은 호랑이를 토렘으로 하는 집단이 적어도 춘추시대 이전부터 중국 서북부와 양자강 중류 지역에서도 활동하였음을 말해 준다. 江西省 新干 商代墓에서 대량 출토된 청동기들도 호랑이의 모티프가 강하게

〈그림 1〉



〈그림 2〉



표출된 것이 특징인데, 입을 크게 벌린 두 마리의 호랑이를 좌우에 수직으로 배치하고 그 두 입 중앙에 人面을 넣은 商代의 石彫와(〈그림 1〉) 쪼그리고 앉은 호랑이가 크게 벌린 입 아래 아이를 품고 있는 형상의 西周 초기 청동기 ‘虎食人齒’는(〈그림 2〉) 殷·周時代 호랑이 토테미즘을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것 같다. 이 석조와 ‘호식인유’도 종래에는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장면으로 이해되었지만, 근래에는 호랑이를 통한 인간탄생의 신화를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한편 곰 토테미즘 역시 동북아 지역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다. 현재에도 중국 동북지방에 거주하는 滿洲族·鄂倫春族·赫哲族 간에는 시조와 母熊이 결혼하였다거나 곰이 인간으로 또는 인간이 곰으로 화신하였다는 신화와 전설이 전하고 있다. 종래 이 문제와 관련 동한말 건립된 山東省 嘉祥縣 武氏祠堂의 화상석이(後室第三石, 屋頂前坡東段石, 〈그림 3〉) 단군신화의 내용을 전한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특히 제 3층 右端 각종 병기를 머리(弓)와 손발에 든 곰과 입 앞에 작은 사람의 형상이 묘사된 동물이(호랑이?) 단군신화의 핵심부분을 묘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단군신화가 고려말에 창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논거로 왕왕 인용되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장면은 黃帝와 蚩尤의 전쟁신화를 묘사하였다는 해석도 있고, 특히 곰 옆의 장면은 한발을 퇴치하는 신화와 관련된 ‘虎吃女魃圖’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 장면은 황제와 치우의 전쟁은 물론 호랑이가 한발의 疫鬼를 잡아 먹는 장면을 묘사한 다른 화상석과도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필자는 무씨사당 후실 제3석 제3층은 대체로 연말 臘日의 전날 밤에 거행되는 疫儀式 大儺祭를 묘사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병기를 휘두르는 곰은 熊皮를 뒤집어

〈그림 3〉



〈그림 4〉



〈그림 5〉



쓰고 병기를 휘두르며 역귀를 쫓는 눈이 네 개인 方相氏, 그 밖의 12개의 인물과 동물상은 역귀를 잡아 먹는 12神, 작은 사람의 형상이 이 의식에서 잡아 먹히는 악귀에 각각 비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나제의 주역 방상씨가 곰가죽을 뒤집어 썼다는 것도 상당한 곰신앙을 반영한 것이며, 이것은 중국인의 시조로 추송되는 黃帝가 有熊氏였다는 전승을 상기하면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다.

이에 비해 산둥성 臨沂縣 普村 출토 墓門石柱의 조각(〈그림 4〉), 즉 앉아 있는 곰의 하반신이 인간의 아기를 안고 있는 형체의 어깨 윗 부분을 이루는 형상은 熊母를 통하여 탄생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 분명하다. 한편 최근 중국 고고학은 은주시대 곰을 소재로 한 소형 조각과 문양을 다수 보고하고 있지만, 특히 기원전 3000년경 遼河 유역 내몽고와 요서를 중심으로 번영하였던 紅山文化에 속하는 소형 玉製 人熊像도 다수 확인되었다(〈그림 5〉). 이 형상은 대체로 머리는 곰, 몸은 임신부의 모습을 띠고 있어 인간을 출산하려는 熊母의 모습이 약여하다. 이 때문에 중국의 학자는 이 부류의 옥기를 곰 토테미즘의 산물로 이해하면서 이 옥기들에 ‘玉熊母神’이란 명칭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 주장을 반대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홍산문화의 분포 지역 즉 내몽고 동부, 대릉하 유역, 遼西 지역의 곰 토테미즘이 기원전 3000년경 이상 소급될 수 있다는 주장도 굳이 부인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韓民族 문화의 원류는 우선 각각 곰과 호랑이를 토tem으로 한 집단중 상호 밀접한 교섭관계에 있었던 집단과 그 문화에서 찾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濊가 호랑이를 신으로 제사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현재 앞에서 언급한 한민족 형성의 범위 집단과 곰 신앙 또는 곰 토tem의 관계를 직접 언급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周初 東北夷의 특산물 조공을 기록하였다는 《逸周書》王會解는 不屠何가 靑熊을 東胡가 黃熊을 각각 조공한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濊와 흔히 병칭되는 貂은 바로 이 문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 같다. 貂은 흔히 貉(맥)으로도 표기되는데, 貉(갯)은 털은 棕灰色에 산고양이나 여우와 비슷한 짐승이라고 한다. 따라서 貂과 貉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면 貂과 곰의 관계는 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貂이 獸名으로 사용될 경우 獭(맥)과 통용되는데, 《爾雅》는 獭을 ‘白豹’로 주해하였으나 《說文解字》는 “곰과 비슷하며 황흑색”으로 설명하였는데, 《이아》郭璞注에 의하면 이것은 “곰과 비슷하며 작은 머리, 쪽 들어간 다리에 흑백이 섞인 색으로 銅·鐵 및 竹骨을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일주서》 왕회해는 푸른 곰과 누런 곰을 각각 조공하는 불도하와 동호에 앞서 玄獭을 不令支의(漢代의 令支현은 현 요녕성 遷安 부근) 조공품으로 전하고 있다. 따라서 貂은 곰은 아니나 곰처럼 보이는 동물로 보인 것은 확실한데, 《일본서기》가 貂에 속하는 고구려를 狛로 표기하고 ‘고마’로(곰) 혼동한 것을(권 19, 欽明天皇 6년) 상기하면 貂은 사실상 곰을 표기한 것으로 보아도 대과는 없는 것 같다. 이것을 熊 대신 貂으로 표기한 것은 고구려의 大山 蓋馬, 鉅燕 남 倭의 북에 있다는 蓋國(《산해경》海內北經) 등을 고려할 때 貂의 발음이 맥족의 자칭어에 근접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天帝의 아들 해모수가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어머니 河伯의 딸 柳花를 熊神山 아래 압록강변의 室에서(熊穴을 상징) 사통하였다는 설화(《삼국유사》 고구려), 檀君이 西河 하백의 딸과 사통하여 夫妻를 낳았다는 설화(《삼국유사》 고구려 註記),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었다는 일설(《삼국유사》王曆篇 東明王)은 곰을 매개로 단군과 주몽이 결합된 사정을 시사하는데, 고구려의 10월 제천 의식 東盟에서 東郊에 있는 大穴 즉 隧穴에서 모셔와 제사한 隧神도 동굴에 거처하던 熊母神으로 보아도 대과는 없는 것 같다. 이때 神坐에 木隧를 설치

한 것으로 보아 隧神 역시 木像으로 추측되는데, 《北史》 고구려전은 夫餘神과 그 아들의 神廟를 소개하면서 木刻婦人像의 부여신(일명 高登神)을 하백의 딸로 그 아들을 주몽으로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고구려 역시 곰 토템의 전통을 계승한 증거인데, 貂이 실제 곰을 지칭한 것이었다면 이 역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단군신화의 곰과 호랑이의 등장은 濊와 貊族의 긴밀한 교섭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구려의 일명이 貂이었고(《後漢書》동이전), 小水貂은 고구려의 별종,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으로 言語諸事가 부여와 동일하였으며, 부여는 본래 예맥의 땅으로서 그 國城의 명칭은 濊城이고 그 왕이 중국에서 ‘濊王之印’을 받았으며, 沃沮 역시 고구려와 언어가 大同하고 음식·거처·의복·예절도 고구려와 비슷하였으며, 예 역시 고구려와 同種로 言語法俗이 대체로 고구려와 같았던 사실(이상 《三國志》魏書 東夷傳)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삼국지》魏書 동이전에 수록된 민족과 국가중 부여·고구려·소수맥·옥저·예를 단군 신화가 형성된 배경 집단으로 일단 인정해도 대과는 없는 것 같다.

2) 태양신앙·새 토템과 난생설화

고구려의 시조 朱蒙의 설화는 《삼국사기》·《삼국유사》·광개토왕릉비·《魏書》 고구려전에 전하는데,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전하는 주몽설화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곰 토템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설화의 핵심은 주몽의 어머니 하백의 딸이 천제의 자 해모수와 사통하였으나 그 결과 주몽이 출생한 것이 아니라 ① 햇빛을 쬐인 결과 임신한 후 ②알을 낳았으며, ③ 거리와 임야에 버려졌으나 禽獸의 보호로 무사하였고, 결국 다시 가져오니 그 알에서 주몽이 나왔는데, ④ 그는 특히 활을 잘 쏘았다는 부분이다. 주몽은 곧 ‘善射’를 의미한다고 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夫餘條 末尾에 裴松之注가 인용한 《魏略》의 曷離國王 侍婢에 의한 부여왕 東明의 출산 설화, 後漢 王充의 《論衡》 吉驗篇에 소개된 曷離國王 侍婢에 의한 부여왕 동명의 출산 설화도 기본적으로 이 요소를 구비하고 있어 이 난생설화는 본래

부여의 시조 설화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주몽설화가 굳이 첫머리에 부여왕 金蛙의 설화를(부여왕 해부루가 鯤淵의 大石 아래에서 발견한 금색 蛙形의 아이)1) 명기한 것은 부여의 시조설화를 고구려 시조설화로 가져왔기 때문인 것 같다. 고구려가 부여의 별종이었다면 이 차용은 오히려 당연한 권리였겠지만, 고구려 남자를 수탉으로 불렀다던가 고구려인이 冠飾으로 두 개의 鳥羽를 꽂았다는 것은(《舊唐書》 고구려전) 고구려인에게 새토텐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었음을 잘 말해 준다. 《魏略》과 《論衡》이 東明의 어머니를 葭離國왕의 (《論衡》의 ‘索離’, 《後漢書》 夫餘傳의 ‘索離’는 모두 ‘葭離’의 오기일 것이다. 葭離는 곧 고구려일 것) 侍婢라고 한 것은 이 설화가 고구려의 시조설화가 된 이후의 혼동으로 해석된다. 어쨌든 주몽설화는 곰 토텐이 후면으로 물러나면서 태양 신앙이 강조된 것이다. 주몽을 동명으로 표기한 것도 이미 이 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5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牟頭婁墓誌가 주몽을 ‘河伯之孫 日月之子’라 하고, 7세기 초에 편찬된 《隋書》 고구려전이 주몽을 “河伯之外孫 日之子”로 표현한 것은 바로 이 변화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었다.2) 그렇다면 태양의 아들이 왜 卵生하였는가. 난생은 곧 새 토텐리즘을 의미하지 않는가. 또 그가 善射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단순히 영웅적 군왕의 자질에 걸맞는 무예로서 강조되었던 것인가.

주몽의 난생설화, 그 어머니가 玄鳥의 알을 삼키고 契를 낳았다는 殷의 시조 설화(《사기》 殷本紀), 역시 길쌈을 하다 떨어진 현조의 알을 삼키고 大業을 낳았다는 秦의 시조 설화(《사기》 秦本紀), 춘추시대 淮水·泗水 유역에서 큰 세력을 떨쳤다는 群舒의 君王 徐偃王도 한 여인이 난 알에서 깨어났다는 난생설화는(《博物志》 異聞) 모두 동북아시아 새 토텐의 산물로 이해되어 왔으며,3) 중국의 동북에서 동남 해안에 걸쳐 분포하였다는 鳥夷가 바로 이

1) 이것은 일종의 水中 탄생 설화인데, 수중에서 낳았다는 淵蓋蘇文의 泉氏(淵氏) 설화와 함께 고구려와 부여에 수중 탄생 시조설화를 가진 부족의 존재를 시사한다.

2) 주몽이 ‘日月之子’란 주장은 결국 하백의 딸이 月神이었다는 것인데, 水神과 月神은 흔히 호환되기 때문에 이 전환은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 전환으로써 주몽이 완전한 天帝의 아들이란 주장의(광개토왕릉비) 근거가 확보되었지만, 한편 하백의 딸과 熊女의 연결이 단절됨으로써 곰 토텐의 전통은 사실상 포기된 셈이다.

새 토템 집단의 실체라는 주장도 유행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 집단 전체의 문화적 또는 민족적 동일성 내지는 친연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주몽설화와 서연왕설화의 근사성을 근거로 회수 유역의 서융과 예맥이 같은 뿌리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최근 고고학의 성과는 신석기시대 이래 중국 동북에서 동남 연안에 광범위하게 존재한 새 토데미즘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홍산문화에서는 鳥形 옥기가 다수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그 陶器紋의 가장 커다란 특징인 M字紋 또는 ‘之’字紋은 바로 막 알에서 깨어난 玄鳥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 때문에 殷文化와 홍산문화의 연속성을 강조하거나, 나아가 은문화의 북방(요하유역) 기원설을 다시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림 6〉



이 견해를 따른다면 주몽의 난생설화는 鳥夷 문화 특히 은문화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燕과 玄鳥의 관계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전국시대 청동기 명문에서도 燕은 ‘匱’으로 표기되지만, 은주 청동기 명문중 제비의 모습이 약어한 圖像符號는(〈그림 6〉) 흔히 ‘燕’자의 초형으로 식독되고 있다. 그러나 殷과 秦의 시조설화는 현조의 알을 삼키고 그대로 인간을 낳았다는 점에서 알을 낳는 난생설화와는 유형이 다르며, 햇빛과 弓·善射의 요소도 보이지 않는다⁴⁾. 이에 비해 徐偃

3) 徐偃王之 경우 새의 역할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며, 버려진 알을 獨孤母에게 물어다 준 개도 실제 黃龍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의 역할은 茂陵蠻의 시조 神犬 槃瓠를 상기시키는데, 槃瓠는 瓠에서 나왔다고 한다. 따라서 이 설화는 瓠生說話와 卵生說話가 결합하면서 瓠는 卵에게, 새는 개에게 각각 양보하였지만, 다시 개 이름을 鶴蒼으로 하여 알과 새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난생설화의 구색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鶴이 과녁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 弓射 역시 이 설화의 일부였음을 암시하는 것 같다.

4) 仲春之月 玄鳥가 도래한 날 거행하는 祈子儀式 高禪는 殷의 玄鳥說話를 儀禮

왕의 설화는 여인이 알을 낳은 유형이며, 周의 시조 后稷 설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버려졌다 회수되는’ 과정도 있지만⁵⁾ 역시 햇빛의 요소는 없으며 瓠生說話의 흔적도 남아있다. 또 버려진 알을 물어온 개의 이름 鵠蒼이 弓射를 암시하기도 하고(주 3 참조) 徐偃王이 朱弓矢를 얻은 후 이름을 弓으로 고치고 서연왕을 자칭하였다는 대목은 있지만, 여기서 弓矢의 의미는 天瑞로 강조되었을 뿐 서연왕의 善射를 직접 시사하는 구절은 없다.

한편 《說文解字》는 ‘夷’를 “東方之人也 仆大仆弓”으로 註解한 것은 물론 望文生意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사로 유명한 東夷 有窮의 后(君王) 羿의 경우, 예는 弓箭, 窮은 弓을 각각 의미한다면, 許慎의 해설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으며, 여기서 羿가 서연왕과 같은 偃姓, 偃은 鷗 즉 燕, 燕은 곧 玄鳥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서연왕 설화의 弓矢는 선사의 상징으로 삼입되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어쨌든 예에 관한 많은 고사와 신화가 전하지만, 그가 선사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은 10개의 태양이 일시에 출현하여 만물이 타들어가는 재난이 발생하자 9개의 태양을 활로 쏘아 떨어트려 자연의 정상을 회복시켰다는 신화일 것이다(《淮南子》本經訓). 한대 화상석에는 이 신화를 한 남자가 나무에 앉아 있는 새들을 활로 쏘아 떨어트리는 장면으로 형상화한 예가 적지 않다(〈그림 7〉). 이것은 湯谷의 扶桑木에 머무는 10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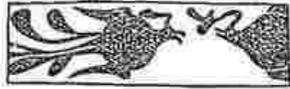
화한 것이 분명한데, 여기서 천자가 최근 관계한 후궁에게 弓韜을 차게 하고 弓矢를 수여하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조 설화에도 궁시의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것은 ‘善射’의 의미보다는 성행위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 5) 주몽과 서연왕이 알로 태어났을 때, 버려지고 회수되는 과정은 姜原이 들에서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임신하여 周의 시조 后稷을 낳은 후, 후직이 버려지고 다시 회수되는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 물론 아직까지 후직을 卵生으로 보는 사람은 없으며, 《史記》周本紀는 그가 버려진 이유를 단지 상서롭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전한다. 그러나 후직의 탄생 전후를 노래한 《詩經》大雅 生民篇의 그가 낳았을 때의 모습을 “不坼不副(터지지도 않고 쪼개지도 않았다)”로 표현하였고, 그가 첫 울음소리를 내기 직전의 사정을 “차가운 여름땅이 위에 놓으니 새들이 날개를 덮어주었다. 새들이 떠나니 후직이 비로소 울음소리를 내었다(誕置之寒水 鳥覆翼之 鳥乃去矣 后稷呱矣)”고 노래하였다. 이것을 난생설화로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같다. 그러므로 필자는 후직 역시 난생설화의 주인공이며, 서연왕과 주몽이 각각 알로 태어나 버려졌다 회수되는 과정은 바로 후직 난생 설화와 관련된 것으로 주장한다.

〈그림 7〉



〈그림 8〉



태양중 9개는 휴식하고 매일 1개의 태양만 교대로 새에 실려 운행한다는 신화에 (《산해경》 海外東經, 大荒東經) 근거한 작품들이다. 郭璞注에 의하면 태양을 실어 나르는 새는 태양안에 흔히 그려지는 三足鳥라고 하는데, 한대 화상석중에도 가슴에 태양을 안고 나는 새의 모습들이(〈그림 8〉) 확인된다. 이것은 결국 새가 태양의 화신이란 관념을 단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 난생설화가 태양 숭배와 결합된 이유를 확연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 羿의 善射에 의한 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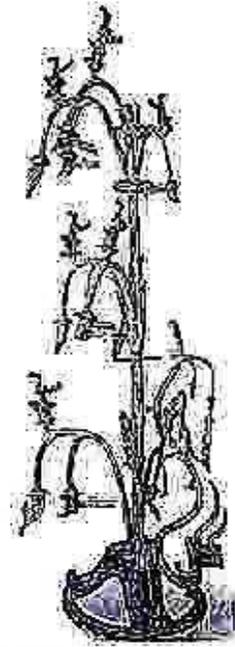
태양의 소멸이란 신화는 결국 궁술이 태양의 정상적인 운동을 보장할 수 있는 주술적 기술이었음을 의미한다면,⁶⁾ 태양숭배와 선사의 결합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⁷⁾

흔히 穀神으로서의 주몽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6) J. Frazer의 *Golden Bough*에도 일식을 막기 위하여 화살에 불을 부쳐 하늘로 쏘는 주술의식이 전한다.
 7) 단군신화중 太白山·朝鮮·阿斯達은 일반적으로 태양숭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檀君도 샤만을 의미하는 ‘당글’ 또는 ‘하늘’을 의미하는 몽고어 ‘탱그리’와 관련하여 ‘天君’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당글’ 또는 ‘탱그리’를 굳이 ‘檀君’으로 음寫한 것은 혹 魏志 동이전 濊에 보이는 ‘樂浪檀弓’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면, 다시 말해 檀君과 弓射의 관계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단군신화의 태양숭배도 이미 弓射와 결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아사달의 일명 弓忽山도 이런 각도에서 다시 음미할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닐까. 즉 전자는 태양, 후자는 弓射를 각각 부각시켜, 양자가 함께 태양신앙과 궁사의 결합을 표현한 것은 아니었을까.

지적되는 李奎報 <東明王篇>의 다음과 같은 설화는 앞에서 언급한 주몽신화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射日神話의 흔적을 전하고 있다. 즉 帶素 일행에 쫓기던 주몽이 大樹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비둘기 한쌍이 날아 오자 神母(어머니, 柳花)가 두고 온 곡식 종자를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두 마리 비둘기를 한 개의 화살로 쏘아 떨어트려(善射) 그 입을 벌려 보리 종자를 얻은 후 물을 뱉으니 비둘기가 다시 소생하여 날아 갔다는 것이다.⁸⁾ 이것은 고구려의 보리 농사의 시작과 관련된 설화이지만, 비둘기를 쏘아 죽였다 살린 것은 모든 태양이 사라진 후 다시 하나의 태양만 불러오는 招日儀式을 상징하는 것이⁹⁾ 분명하고, 실제 일본의 신년 농경의례에 射日儀式이 포함된 예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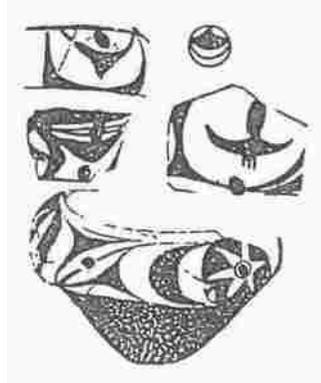
기원전 1000년 이상으로 소급되는 사천성 三星堆 유지 祭祀坑에서 발견된 가지 끝에 각각 새가 앉아 있는(본래 10마리로 추정) 거대한(높이 약 4m)

靑銅神樹는(〈그림 9〉) 扶桑신화가 商代까지도 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혀 주었지만, 기원전 5천년까지 소급되는 절강성 餘姚縣 河姆渡 신석기 유지에서 발견된 雙鳳朝陽象牙彫刻과(가운데의 태양에서 좌우 양쪽으로 뻗어 나온 두 마리 새의 머리가 서로 마주 보는) 세 개의 다리에 머리가 들인(좌우 반대로 향한) 수탉 모습의 새 가슴 부분에 태양이 조각된 상아(〈그림 10〉), 그리고 陝西·감숙·하남성 일대 앙소문화 유지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 ‘태양안의 三足鳥’ 도안(〈그림 11〉) 등은 모두 태양과 새의 호환성 관념이 신석기시대 초기까지 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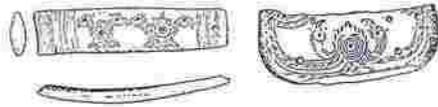
8) 〈그림 6〉 상단의 새가 곡물을 물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라.

9) 射日神話 중 하나만 남은 태양도 숨어 버려 그것을 다시 불러오는 과정이 포함된 유형을 참고하라.

〈그림 11〉



〈그림 10〉



이와 같이 주몽설화는 곰 토테미즘이 배면으로 후퇴되고 태양숭배, 射日神화, 卵生, 새 토테미의 복합이 전면으로 나온 것인데, 이와 관련 강소성 徐州市 銅山縣 苗山 漢墓의 화상석은(〈그림 12〉)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상단 왼쪽에는 새가 들어 있는 태양, 오른쪽에는 熊首人身에 날개같은 깃털이 달린 神人, 그 아래에는 하늘로 솟으려는 듯한 천마, 다시 그 아래에는 貫珠를 등

〈그림 12〉



에 진 코끼리가 刻畫되어 있다. 여기서 일단 코끼리를 제외한 부분을 우선 주목해 보면, 扶桑 옆에 매어 있는 말도 한대 화상석에 빈번히 나타나는 주제인데, 이 말은 태양의 운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말·새·태양과 곰을 결합시킨 이 화상석의 주제는 주몽설화의 기본 모티브와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더욱이 코끼리가 남방 聖獸임을 고려하면, 코끼리와 그 윗 부분은 각각 남·북방의 성수들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필자는 《산해경》海內經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東海之內 北海

之隅 有國名曰 朝鮮 天毒”. 천독은 인도이다. 따라서 이 기사를 동북의 국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양국을 각각 동북과 서남부를 대표하는 나라로 이해하지 않으면, 조선과 천독이 병거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 기사를 앞에서 소개한 화상석의 구도와 결합하면, 코끼리는 인도, 그 上部는 조선의 신화를 각각 묘사하였다는 결론도 전혀 엉뚱한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물론 필자도 이것을 그대로 주몽설화에 천마신앙이 가미된 동북 예맥 신화의 형성화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화상석은 태양승배·새토텀이 곰토텀과 병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은 분명하다. 주몽설화가 참고할 수 있는 신화와 설화를 작위적으로 복합하여 창작된 것이 아니었다면, 부여와 고구려의 문화적 원류도 이들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형성된 문화권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해 신라 박혁거세의 난생신화는 태양(電光같은 異氣, 알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백마(천마), 天降, 몸의 광채, 光明理世), 난생, 새(鷄龍)의 요소만 확인되며, 遺棄된 후 회수된 과정과 善射의 요소도 없으며, 여인에 의한 産卵 과정도 없다. 그러나 대신 이 설화에는 주몽설화에는 보이지 않는 요소가 등장한다. 우선 천마를 통한 알의 하강도 기마문화와의 관련을 강하게 시사한 점에서 주목되지만, 알이 발견된 장소가 우물이며(蘿井, 그 부인 關英은 關英井) 알에서 나온 아이를 샘이나 川에서 목욕시켰다는 것(東泉, 關英은 月城北川) 이 설화가 주몽설화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말해 주는 것 같다. 이것은 鯤淵의 대석 아래서 발견된 金蛙, 그 조선이 水中에서 나왔다는 고구려 淵氏, 용왕 아들 용성국왕의(용성국은 왜의 동북 천여 리에 있었다고 한다) 아들로 태어났지만 알 상태로 태어나 櫃[櫃] 속에 넣어 바다에 띄워진 후 신라에 도착하였다는 석탈해 설화¹⁰⁾ 등과 같이 水 또는 海를 거치는 난생설화의 유형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혁거세가 나온 알이 “瓠[박]와 같았다(如瓠)”는 점을 주목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이 역시 광명을 의미하는 당시 신라 말의 발음이 현재 ‘밝다’와 비슷하였고, 瓠를 신라에서 ‘박’으로 불렀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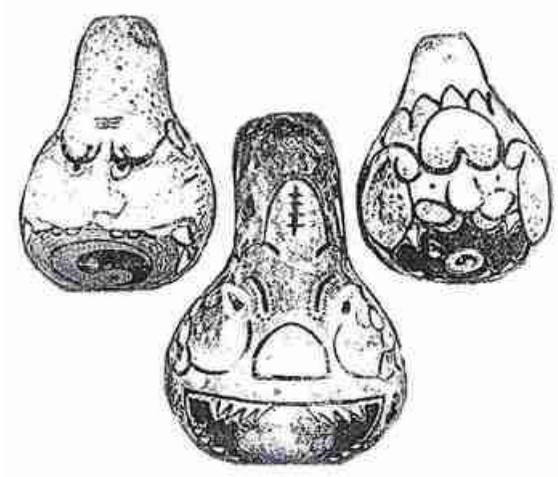
10) 석탈해가 실린 瓠가 떠내려 올 때, 한 마리의 鵲이 울며 따라왔기 때문에 ‘鵲’에서 ‘鳥’를 빼고 ‘昔’을 씨로 하였다는 것은 그의 난생과 鵲의 관계를 암시한다.

문에 거꾸로 ‘밝음’을 ‘박’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그 알을 ‘如瓠’로 부회한 것으로 이해하면 그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설명이 너무 어색한 것도 문제이지만, 박혁거세 시대부터 박·석·김씨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瓠公을 주목하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 같다. 그는 박혁거세를 위하여 馬韓과 교섭하기도 하였고, 계림에서 김알지를 발견하기도 한 인물인데, 석탈해는 속임수로 그의 택지를 빼앗으나 왕이 된 후 그를 大輔로 삼았고, 석탈해가 왜의 동북에서 왔고 호공도 본래 倭人으로 허리에 瓠를 달고 (헤엄쳐) 바다를 건너 왔다는 것을 보면 호공과 탈해는 모두 瓠 또는 櫛에 실려 해류를 따라 왜 또는 그 방향에서 신라로 건너온 집단으로 추정된다.

중국 서남부 소수민족에 광범위하게 유행하는 홍수신화, 즉 홍수로 인류가 전멸하였으나 瓠 속으로 피신한 남매가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는 신화(伏羲·女媧), 漢代 茂陵蠻의 시조였다는 神犬 槃瓠도 본래 호에서 나온 벌레였다는 신화(《後漢書》南蠻傳, 《搜神記》 권 14), 지금도 중국 서남부 彝族들은 호를 祖靈으로 받들고 있으며,¹¹⁾ 《禮記》婚儀篇에 전하는 부부합체의식의 하나가 2

11) 앞에서 이들이 토템이 虎라는 것을 지적하였지만, 이들은 虎와 瓠의 토템을 결합하여 瓠에 虎를 그려 祖靈으로 받든다(〈그림 13〉).

〈그림 13〉



개의 바가지(瓢)로 쪼갠 호를 다시 하나로 합쳐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는 것은 모두 ‘호에서 탄생한 인류’란 관념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瓠公이 허리에 瓠를 달고 바다를 건너왔다는 것도 실제 해류를 타고 흘러온 호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해도 대과는 없다면, 호공은 당시 신라의 호생설화를 담지한 집단의 대표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 최근 일부 일본학자들은 기원전 300년경부터 시작한 일본의 농경문화 야요이 문화의 원류를 중국 고대 강남문화에서 찾으려고 하는 한편 倭人 역시 이 지역에서 농경(稻作과 양잠) 및 금속 문화와 함께 이동한 집단이었을 가능성을 열심히 탐색하고 있다. 이 연구들을 참고하면 호공이 왔다는 倭도 일본열도가 아닌 중국의 연해안 지역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어쨌든 호에서 탄생한 시조, 즉 瓠生說話와 중국 남부지역의 관련성은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 호생설화가 ‘해류를 타고 흘러온’ 요소가 결합된 것은 이 집단이 실제 해상으로 이동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홍수신화에도 인류의 시조가 나온 호는 大水를 떠 다녔다는 것을 상기하면 ‘물위로 떠 다니는 것’은 본래 호생설화의 중요한 모티브였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렇다면 석탈해설화는 호생설화를 중심으로 난생설화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해류를 타고 온 瓠가 櫓으로 바뀌었고,¹²⁾ 박혁거세의 설화는 騎馬文化와 결합한 난생설화를 중심으로 호생설화가 결합되면서 “그 알이 호와 같았다”는 것이 삽입되는 한편 알의 발견을 우물가로, 태어난 아기의 목욕장소를 샘 또는 川으로 추가하고, 성도 朴 즉 瓠로 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 같다.¹³⁾

한편 호공이 마한에 가서 알영과 박혁거세를 국가를 흥기시킨 ‘二聖’으로

12) 《삼국사기》는 석탈해의 출자국을 왜의 동북 1천 리에 있는 多波那國으로, 그 어머니를 여인국의 왕녀로 전하는데, 이 여인국은 《위지》 동이전에 언급된 옥저의 동해에 있는 섬일 것이다. 따라서 《삼국사기》도 탈해가 일본 열도의 동북에 위치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탈해가 冶匠이었던 점(脫解란 말 자체가 철을 의미), 일본 열도의 철기기술도 대체로 한반도를 거쳐 전해진 것을 감안하면, 일본 열도 동북 천리 밖에서 鐵冶匠이 신라에 왔다는 것은 너무나 어색하다. 그러므로 필자는 탈해설화는 중국 남부의 호생설화와 철기기술이 직접 또는 한반도를 거쳐 전래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한다.

13) 중국에서 박성은 槃瓠蠻(武陵蠻)과 동일한 종족인 板盾蠻의 대성으로 확인되는데, 朴胡란 이름의 巴夷王도 있었다고 한다. 박혁거세와 중국 남부 문화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역시 우연만은 아닐지 모른다.

주장하였고, 실제 알영과 박혁거세가 함께 순행하며 농상을 장려하였다는 것, 그 아들 남해왕의 妃 雲梯夫人도 영일현 雲梯山聖母로 신앙되어 한말을 구제하는 신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모두 모계가 중시되는 중국 남부 문화를 상기시킨다. 이 점은 바다를 통하여 도착한 首露王과¹⁴⁾ 허황후의 설화도 마찬가지로 같¹⁵⁾다. 신라 왕권이 박·석·김씨에 의해서 교대로 계승되고 3명의 여왕도 추대된 것 역시 모계의 중시와 관련된 것이라면, 초기 신라와 중국 남부문화의 관계는 의외로 긴밀하였던 것 같다.

이에 비해 金關智설화도 白鷄가 핵심적인 요소인 만큼 일단 난생설화에 속한다. 그러나 황금계 안의 내용물은 男兒이므로 이미 卵의 요소는 표면에서 후퇴함으로써 난생의 성격이 크게 약화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대신 이 설화에는 새로운 요소가 등장한다. 즉 금계와 그것이 발견된 곳 숲 속의 나무가지가 바로 그것이다. 석탈해가 실려온 것도 櫃[櫃]이므로 櫃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木櫃이 아닌 金櫃이다. 이것은 신라의 화려하고 정치한 황금 수공예를 상기시키는데, 그 원류가 북방 스키타이문화와 무관하지 않다면, 이 설화는 황금을 즐겨 사용하는 북방 유목문화를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關智 역시 흉노 單于의 부인 關氏를 연상시킨다¹⁶⁾. 한편 숲과 나무는 동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유행한 神樹신앙을 시사하는데, 이 점은 다음 장에서 논하겠¹⁷⁾다.

14) 首露가 깨어난 황금알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점에서 수로 설화도 일단 태양숭배, 난생, 황금문화의 복합으로 이해되지만, 거북이를 매개로 알이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거북신앙 내지는 바다를 통하여 이동해 온 집단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15) 皇后로 표기한 것도 首露王妃의 許氏의 특별한 지위를 시사하지만, 자손을 金과 許 양성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강한 모계를 웅변하는데, 이 점은 일본 고대 국가의 호적에서도 확인된다.

16) 關智를 《삼국사기》는 “충명하고 지략이 많다”는 의미로, 《삼국유사》는 ‘小兒’의 의미로 각각 전하고 있지만, 脫解의 語義를 “解轡櫃而出(계를 썩 것을 풀고 나왔다)”로 해석한 것처럼 이 역시 望文生意에 불과한 것 같다.

3) 산악신앙과 신수신앙

단군신화의 또 다른 핵심은 천제의 아들 환웅이 徒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의 정상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인간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다는 부분이다. 이것은 山嶽信仰과 神樹信仰을 반영한 것이었다는 것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으며, 이 역시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도처에서 확인되는 원시 신앙이다. 고대인에게 산은 각종 精靈과 諸神이 거주 또는 출입하는 非 인간의 세계로 인식되었고, 특히 그 정상은 천계로 곧 바로 연결되는 신성한 장소였다. 천제의 아들이 하강한 장소가 태양숭배의 상징인 태백산의 정상이었다는 것은 극히 당연하였다. 수목, 특히 거대한 수목도 정령과 신이 깃든 것으로 경배되었지만, 생명의 영생과 자손의 번식을 보증하는 존재로도 인식되었기 때문에 上古 중국에서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聖所인 社에 수목을 심거나 巨樹 또는 叢林을 社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 성황당 주변에 작은 숲 또는 몇 그루의 나무가 있는 것도 바로 이 수목신앙을 반영한 것이다. 또 고대 중국에는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여 천지간을 왕래할 수 있는 사다리로 이용되는 天梯神樹 또는 宇宙軸樹의 관념도 보이는데, 《산해경》 海內南經과 《淮南子》 墜形訓에 소개된 建木이 바로 그것이다.

환웅이 태백산 정상 神壇樹 아래 하강한 것은 바로 산악신앙과 신수신앙이 결합된 관념을 반영한 것이 분명하며, ‘신단수’란 표현이 정확하다면 수목 주변에 神壇을 쌓았거나 신단을 쌓은 후 수목을 심은 것으로 추정되어 단순한 신성한 숲에 대한 신앙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¹⁷⁾ 어쨌든 《삼국유사》는 이 부분을 “降於太白山頂神壇樹下 謂之神市”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을 환웅이 신단수 아래 ‘神市’를 열었다고 해석한 후 ‘神市’를 ‘신시’로 읽고 ‘신의 도시(city)’로 이해하는 것이 종래의 정설이다. 그러나 우선 문맥상 ‘神市’는 神壇樹를 가르키는 것도 분명하며, 여기에 ‘연다(開)’는 의미가 개입될 여지도 없다. 더욱이 한자의 ‘市’가 도시를 의미한 것은 근대 행정제도가 도입

17) 그러나 《삼국유사》가 단군도 ‘壇君’으로 표기한 것을 보면, 본래는 ‘神壇樹’일 가능성도 높다.

된 이후이며, 본래는 사람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파는 교역의 장소를 의미하였다. 唐代까지도 市는 성내의 일정한 구역에(문을 통하여 출입하는)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城市’(《後漢書》方術傳 廖扶傳) 또는 ‘市邑’은(《潛夫論》浮侈篇) 각각 ‘성안의 시장’ 또는 ‘시장이 있는 읍’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였으며, ‘市’ 한 자로 성읍을 표현한 예도 없다. 다만 宋代 이후 성외 교통의 요지에 교역이 발달하면서 취거가 형성된 곳에 鎭이 설치된 이후 이것을 ‘市鎭’ 또는 ‘市’로 칭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이 역시 도시 보다는 시장의 의미가 강조된 개념이다.

그렇다면 ‘신시’가 ‘신의 도시’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신시’는 ‘신의 시장’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나 산 정상에 시장을 열었다는 것은 너무 어색하다. 물론 시장의 원초적인 형태가 본래 祭儀가 거행되는 기간 교역이 이루어지는 聖所였던 것은 사실이며, 이 점은 최근 중국고대사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관건에 한한 문헌상 ‘시(市)’에서 제의 또는 특수한 종교적·주술적 의식이 거행되는 것은 확인되지만, 성소 자체를 ‘市’로 표현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즉 문헌상 성소 자체를 ‘시’로 표현한 예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설혹 신단수 또는 그 부근이 성소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의 원초적 성격을 기억하여 ‘신시’로 표기하려고 해도 이미 ‘시’에는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숨씨가 없었고, 따라서 ‘신시’는 ‘신의 성소’라는 의미로 전달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문제는 ‘神市’의 ‘市’를 ‘시(市部 2획)’로 읽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이것이 ‘市(불)(市部 1획)일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는데, 역시 ‘市(불)’에는 ‘초목이 무성한 모습’이란 의미가 있었고 《說文解字》도 ‘불’을 “草木市市然”으로 해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불’은 叢木 또는 叢林이며, 따라서 ‘신불’은 수목 신앙과 관련하여 흔히 지적되는 神叢과 동일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며, 이 해석만이 단군신화에 포함된 수목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맥상의 어색함도 사라진다.

한편 신라 6촌의 촌장들이 모두 山頂으로 하강하였고, 南解王의 비가 운제 산성모로 신앙되었다는 것은 모두 산악신앙을 반영한 것이며, 수로왕이 깨어난 황금알이 담긴 붉은 보에 싸인 金盞이 하늘에서 龜旨峰으로 내려 왔다는

수로왕 설화도 황금문화, 난생, 태양, 거북(또는 해상 이동) 신앙과 함께 결합된 산악신앙의 존재를 시사한다. 이에 비해 김알지설화에 보이는 수목신앙은 산악신앙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위지 동이전 馬韓傳에 전하는 蘇塗에 반영된 수목신앙도 마찬가지이다. 소도는 國의 別邑에 세운 ‘大木’이기 때문이다. 이 별읍을 소도라고 한 것은 이 대목이 곧 소도였기 때문인 것 같다. 신주 역시 신수신앙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소도에 북과 방울을 걸어 놓고 귀신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수목신앙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다. 북과 방울이 신을 부르는 神器였다면, 소도는 천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天梯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樹가 아닌 木柱였다는 것은 수목신앙의 원형을 많이 상실하여 김알지 설화의 수목신앙보다 시기적으로 늦은 것으로 보이는데(이 大木은 정기적으로 산에서 별목해 왔을 것이다), 이 소도를 세우는 의미를 불교와 비슷하나 선악의 기준이 다르다고 한 것은 단순한 사머니즘적 단계를 넘어서 사회 규범을 통제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제의로 발전하였던 것 같다. 이 성소를 제사한 것으로 보이는 天君도 國邑의 군장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 소도신앙이 君長權과 분리된 후기 단계를 시사하지만, 天君이 별읍의 長이었다면, 그리고 죄인도 그곳으로 피신하면 안전하였다는 것은 祭政이 분리되면서 제사가 俗權에 완전 종속되기 이전의 과도 단계를 말해 주는 것 같다.

소도는 지금도 남아 있는 솟대나 장승의 원류였다는 것이 정설인데, 솟대 위에는 새 모양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소도와 새의 관계를 직접 언급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대전 부근에서 발견한 청동기에는 앞면에는 약간 휘어진 Y자의 양 가지에 각각 새가 앉아 있는 모습과 뒷면에는 농경의례로 추정되는 각화는 소도의 식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14〉).

〈그림 14〉



또 《삼국지》 위서 동이전 倭傳의 對蘇國은 현재 일본의 鳥棲에 해당하는데, 이 지역에서 역시 신을 부르는 神器의 일종인 銅鐸도 출토되었다면, 蘇塗와 그 발음의 도치인 對蘇도 ‘새가 깃든’ 또는 ‘새가 깃든 장대’ 정도의 의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새가 앉아 있는 神竿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동남 연안에 이르는 지역은 물론 내륙 운남성과 일본에서도 낫설지 않는 풍경이다. 소도로 변형된 수목신앙은 종래 주로 북방문화의 계통으로 이해해 왔지만, 역시 중국 남부 문화권과 관련된 것이었을 가능성도 높다.

4) ‘기자조선’과 은주문명

韓民族 문화의 원류를 논하면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한 중국 문명의 요소를 논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이 아닐 것이다. 漢 4郡의 설치에 의한 본격적인 중국 문명의 보급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辰韓의 주민이 秦末의 전란을 피하여 온 중국의 유민이었다던가 衛滿이 燕의 유민집단을 이끌고 조선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중국 문화가 韓民族 문화를 형성한 중요한 일부였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箕子朝鮮의 실재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논쟁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두 가지 문제와 직결된다. 즉 ① 중국 殷·周文明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한민족 형성 집단에 과급되었고 ② 과연 은말 주초에 이미 조선이 한민족 형성의 핵심 집단으로 존재하였느냐는 것이 그것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기자가 조선에 봉해지자 단군은 藏唐京으로 이동한 후 아사달에 숨어 山神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초 伏生의 《尚書大傳》이 기자의 조선 被封을 언급한 이래¹⁸⁾ 《사기》를 비롯한 역대 사서와 문헌들은 모두 이것을 史實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특히 《한서》 지리지는 현도·낙랑군을 조선·예맥·고구려의 지역으로 설명하면서 朝鮮으로 간 箕子에 의한 禮義와 농경·蠶桑·방직의 보급을 예찬하고 있으며, 위지 동이전 夫餘 條가 殷曆 정월의 祭天을 전한 것도 기자를 통한 은 문화의 전래를 의식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대의 鮮虞氏는 기자의 후예를 자칭하였다(鮮于璜碑文). 이에 비해 衛滿 이전의 조

18) 《周易》明夷 六五爻辭 “箕子之明夷”의 ‘明夷’를 ‘朝鮮’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적어도 기자가 조선으로 간 전승은 춘추시대 이전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이다.

선왕들이 스스로 기자의 후예를 자칭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宋微子世家에서는 기자의 조선 봉건을 대서특필한 《사기》도 막상 조선열전에서는 이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대의 학자들이 기자의 조선 봉건을 그토록 확신한 것은 무언가 선진 문헌에 근거하였거나 조선의 자칭을 傳聞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¹⁹⁾

箕子是 은왕의 친척 또는 서자로 전해졌지만 箕族 출신은 분명하다. 은대의 갑골문이나 은대 기족 청동기의 출토 상황을 보면 은대 기족은 주로 산동성 서부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1976년 발굴된 은왕 武丁의 妃 婦好的 묘에서 출토된 기족 청동기 21건은 은대의 기족이 산동의 유력한 씨족으로서 왕실과 관계도 밀접하였으며 은대 청동기 문화의 중심에 참여한 것이 분명하다. 실제 기후 청동기에는 ‘箕’ 또는 ‘其’ 字와 함께 상왕조의 畿內 제후를 표시하는 ‘亞’ 字가 함께 표기된 것도 그 일족의 정치적 지위를 잘 말해 준다. 기자가 실제 조선에 봉건되었다면 이와 같은 기족이 보유한 은대 최고의 청동기 문화가 조선에 이식되었을 것이며, 周初 齊·魯·燕 등의 봉건 사례로 보아 기자 일족 뿐 아니라 봉건시 사여된 상당 규모의 예속 씨족 집단도 함께 이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左傳》에 보이는 현 산서성 蒲縣 동북 부근의 箕, 箕의 귀족 箕氏의 활약은 은대 기족의 일부가 晉侯에 복속되어 산서로 천사된 사실을 입증해 준다. 한편 70년대 遼寧省 喀左 北洞에서 발견된 箕侯 청동기도 이 지역까지 기족의 일부가 이동한 사실을 밝혀주었는데, 이 기후는 은말·주초 대릉하 유역까지 진출한 殷系 세력의 일부로 보인다. 특히 이 청동기는 孤竹國의 청동기와 함께 출토되었는데, 그 銘文에 의하면 기후와 고죽은 모두 燕侯에 복속된 소 집단에 불과한 것 같다. 더욱이 산동의 紀(箕)국도 姜姓이었다면, 이것은 은대 기족의 근거지에 강성을 봉건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周初의 기족은 유력한 봉건 제후에 각각 분산

19) 《尙書大傳》도 기존의 문헌 또는 口傳에 의거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기》도 단순히 《尙書대전》을 근거로 宋微子世家의 箕子 기사를 창작한 것은 아닐 것이다. 또 《한서》 지리지의 낙랑·현토의 풍속기사는 현지 郡縣의 보고에 의거한 성격이 강한데, 함께 언급된 箕子の 教化도 그 보고 또는 傳聞의 일부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魏略》이 전하는 朝鮮 기사도 찬자의 창작은 아니라면, 적어도 위만 이전 朝鮮의 고사전승이 별도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신속되었을 뿐 기족 주체의 대규모의 봉건은 없었던 사실을 말해 준다. 기자의 조선봉건을 전한 기사들도 대체로 그 봉건이 주 왕실의 계획된 정식 봉건이 아니라 기자가 조선으로 망명한 이후에 朝鮮侯로 추인한 것으로 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 같다. 사실 주대 봉건 제후국중 複字名의 예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조선후란 칭호 자체도 대단히 의심스럽지만, 기자가 다시 周에 입조하였을 때 殷墟를 지나며 망국의 비애를 담은 麥莠之詩를 읊었다는 것도 허구에 불과한 것 같다. 서주의 王都 成周는 낙양이었고 鎬京은 섬서성 서안 이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남성 安陽의 殷墟를 지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설사 기자 또는 그 일족이 조선지역으로 간 것은 사실이었을지라도, 그 이동 집단의 규모도 작았고 그 일족이 보유한 전 역량을 대동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아직까지 요서 일대에는 전형적인 은문화나 조기 주문화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서주 이후 이 일대에서 발전한 夏家店上層 문화에서도 중원 청동 禮器 문화의 영향이 뚜렷하지만 주의 대규모 봉건 식민과 은주 문화의 대대적인 이식을 추측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요동지역의 상황은 더욱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마치 “고구려의 땅은 본래 고죽국의 (땅)이었는데, 주대에 그곳에 기자를 봉하였다”는 《隋書》裴矩傳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 같다. 고죽은 현재 하북성 灤縣 부근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과연 기자가 실제 고죽 또는 그 일대에 봉건된 것이었는가. 아니면 燕侯에 臣屬된 기후의 일시적인 이 지역 진출이 기자의 조선 봉건으로 부회되었는가. 아니면 기자 또는 그 일족이 이 일대에 기후로 봉건되었으나 그후 이 지역을 차지한 조선이 기자의 후예를 자처한 것인가. 이 문제는 결국 적어도 은말·주초에 조선이 이미 존재하였느냐는(그 위치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문제와 직결된다.

기자의 봉건 또는 기자의 조선행을 전하는 자료들은 모두 당시 조선의 존재를 전제로 기술한 것 같다. 그러나 선진 문헌 중 조선을 직접 언급한 것은 《山海經》(海內北經, 海內經)·《管子》(輕重甲)·《戰國策》(燕 1)에 불과한데, 이들의 성립 연대는(특히 조선이 언급된 편장)은 전국시대 이상 소급되지 않으며,²⁰⁾ 전국시대 魏 襄王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다는 《逸周書》王會解는 여러

동북아를 열거하면서도 조선은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중국의 동북에서 확인되는 집단 중 ‘조선’의 의미(밝음, 광명) 또는 현재 한국어의 ‘밭’이라는 음에 근사한 집단, 즉 發·不·符婁·白民(이상 《일주서》)·貊·亳·北(이상 《시경》)·番 등이 바로 조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發과 조선이, 예맥과 조선이, 진번과 조선이 각각 병칭된 것을 보면, 설혹 이들이 모두 동일한 계통에 속하였을지라도 조선도 이들중 하나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또 發과 貊이 은말·주초에 이미 존재하였다고 조선 역시 동시기에 존재하였다는 보장도 없으며, 조선이 ‘밭’ 등의 의미를 한자로 표기한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조선이 순록을 의미하는 현지어의 音寫였고, 따라서 肅慎(息慎·稷慎)도 조선과 동일하다는 주장도 있고, 한편 朝와 鮮을 구분하여 鮮은 魚에서 유래하였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대 조선이 燕의 동 또는 동북에 존재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史記》의 기술로 보아 위만의 국호가 조선이었고 그 이전 朝鮮과 眞番이 그 부근에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 《위략》의 기사를 신뢰한다면 전국시대의 조선은 燕과 대결할 정도로 강성한 나라로 보인다. 그러나 《위략》에 소개된 그 국가의 명호가 실제 조선이었지는 분명치 않다. 그 君王이 연의 稱王 이후에 비로소 칭왕하였고 그 이전에는 侯를 칭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準王의 국호가 조선이었다면 그가 위만에 쫓겨 달아나서 한왕을 칭하였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조선의 왕이었다면 남부로 달아나서도 조선왕을 칭하였을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위략》의 朝鮮王 또는 朝鮮侯는 ① 조선이 동북지역의 통합세력이었고 ② 기자의 조선봉건을 전제한 허구에 불과하거나 중국인들이 일방적으로 이민족을 外臣 제후로 편입하는 관념의 소산으로 보인다. 은말 주초에 조선이 없었다면, ‘朝鮮侯 箕子’도 존재할 수 없었겠지만, 주초 燕侯의 통제하에 대릉하 유역에 진출한 기후가 설혹 ‘조선’의 일부를 복속하여 조선후를 자칭하였을지라도 그 ‘조선’은 전국시대의 조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소국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 소국도 문명의

20) 《관자》의 ‘發 朝鮮’이 管仲과 齊 桓公의 대화에 나온 것을 근거로 ‘조선’의 명호가 적어도 제환공의 시대인 기원전 7세기까지 소급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관자》, 특히 그 輕重篇의 성립 연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소치일 뿐이다.

중심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였다면, 그리고 그 일대의 문화가 현격히 낮았다면, 이 소국은 문명의 거점으로서 주변의 문명화에 크게 기여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도 서주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춘추시대 연도 응적의 핍박을 계속 받은 상황에서 기후국도 문명의 중심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이미 夏家店 하층문화 이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고 있었고, 그것을 계승한 하가점 상층문화에서 은주 문명의 요소는 별로 강하지 않다. 그렇다면 箕侯國이 설혹 상당 기간 존속하였을지라도 요동은 물론 요서에서도 문명의 전초 기지 역할을 크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고구려의 箕子神 제사도 단순한 ‘기자조선’의 계승을 자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혹 고구려의 모체와 기후국의 역사와 긴밀하게 관련된 것이었을지라도, ‘기자조선’이 예맥 세계에 은주 문명을 이식한 공헌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5) 조선·한·예·맥의 공간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수록된 부여·고구려·小水貊·沃沮·濊·三韓의 위치는 상호간의 경계나 그 정확한 위치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대체로 한반도와 그 북부, 요동반도의 이동에 분포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위만과 그가 쫓아낸 準王의 도성 왕검성도 현 대동강 유역의 평양 부근이 거의 확실한 것 같다. 따라서 전국시대(기원전 3세기 초) 조선이 燕에 의해 2천 리 밖으로 밀려났다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당시 조선의 서쪽 세력 범위는 대체로 대릉하 유역까지 미쳤고, 그 도성 역시 대동강 유역이 아니라 요동 부근에 있었을 가능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왕검성에 이르기까지 건너는 遼水·滿番汗·溟水·列水 등의 위치를 재 비정하여 심지어 요수도 현재의 灤河로 보는 한편 왕검성과 동일한 의미로 추정되는 險瀆이 한대 요동군의 險瀆縣 및 하북성 난하 하류의 昌黎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을 이유로 단군 또는 기자조선의 중심부를 난하 유역으로 설정하는 주장은 찬성하기 어렵다. 시대에 따른 지명과 水名의 이동을 고려하는 것도 상식이며, 險瀆이(임금의 터?) 王都 또는 군장의 읍을 왕검성으로 명명하

는 집단이 남긴 지명이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러나 조선과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집단이 전국시대 이전 이미 하나의 왕권에 통합되었다는 증거도 없지만, 조선의 왕도명이 왕검이었다는 것과 ‘임금의 터’가 모두 조선의 왕도였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좌전》 중 춘추시대의 주왕이 주왕조의 ‘北土’ 즉 북계를 “肅愼 燕 亳”으로 표현한 것은 (昭公 9년) 적어도 주초의 貉은 연산산맥 부근에서도 활동한 인상을 준다. 이것은 燕과 亳이 連接한 인상을 주는데, 당시 연의 국도는 북경 남쪽 琉璃河에 있었고 ‘박’은 貉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흔히 거론되는 것은 周 宣王에 의한 韓侯의 재책명을 묘사한 《시경》 韓奕篇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즉 “薄彼韓城 燕師所完 因先祖受命 因時百蠻 王錫韓侯 其追其貉 奄受北國 因以其伯(저 웅대한 한성, 燕師가 완성해 주었네, 네 선조가 명을 받아 百蠻을 관리하였도다. 왕이 한후에게 (다시 명을) 내리니 追와 貉을 (복속하여) 북국을 (어루만지는 명을) 받아 그 伯이 되어라)”. 여기서 ‘追’가 ‘濊’라면 이 구절은 ① 당시 예맥이 한성 부근에 존재하였고, ② 한이 이처럼 예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면 위지 동이전에 보이는 한반도 남부의 韓도 西周의 韓城 부근에서 활동한 시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이 한성은 어디에 있었는가. 종래 이 문제는 섬서 韓城縣과 하북 方城縣說이 대립되어 왔다. 후자는 특히 韓과 燕의 근접성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때문에 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燕’을 ‘安’(평안한 시기)으로 해석함으로써 한과 연의 관계를 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초 燕 昭公은 陝 이동의 군사를 총괄하였고, 周王이 被封 제후의 도성과 궁을 건설해 주는 예도 확인되는 만큼 섬서성의 한성 축조에 燕의 인력이 동원되었다고 해도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면, 섬서 한성설도 부정할 이유가 없지만, 韓城이 韓의 이동과 함께 섬서 북부에서 하북 북부로 이동한 것으로 이해하면 양설이 모두 성립할 수도 있다. 실제 하북성 文安·大城·任丘 일대에도 濊水·濊口·濊邑(한대에 章武縣으로 개명)·貉邑(진한대에 莫縣을 개명) 등의 고지명이 전한다고 한다. 漢初 기병을 보내 漢을 도운 北貉과 北人道(《漢書》高祖本紀 4년 8월) 華北에서 그리 멀리 떨어진 집단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것은

결국 주대의 예·맥·한이 모두 주로 狄의 무대로 알려진 중국 북방과 하북의 북부에서도 활동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²¹⁾. 그렇다면 貊과 동방 夷와 연칭된 예가 없는 반면 왕왕 貊과 狄이 연칭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으며, 역대 주석가들이 대부분 貊을 東夷가 아닌 北狄으로 분류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보이는 梁貊은 太子河의 古名 梁水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韓奕篇이 韓城의 소계를 梁山으로 명기한 것을 상기하면, 양맥은 韓侯에 예속되었던 貊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尙書》周官 孔氏傳의 “海東諸夷 句麗 扶餘 駢貌”의 “駢貌”도 “韓貊”의 異寫라면, 이 역시 韓과 貊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입증해 준다. 조선이 韓姓을 칭하였다는 것(《潛夫論》志氏姓, 여기서 조선은 ‘韓西’로 표기, 西는 ‘鮮’과 통한다), 위만에 내쫓긴 準王이 海中으로 피신하여 韓王을 칭하였고²²⁾(그 이전에도 한왕을 칭하였을 것), 韓人들이 《魏略》이 찬술된 시기에도 그를 계속 제사하였다는 것은(《위략》) 모두 섬서성 韓侯에 복속되었던 예맥의 東遷을 상정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이에 비해 주초 魯侯의 淮夷·徐戎 정복을 찬양한 《시경》魯頌 闕宮의 다음과 같은 시귀는 貊의 일부가 회수 유역에서도 활동하였음을 입증해 주는 것 같다. 즉 “遂荒徐宅 至于海邦 淮夷蠻貊 及彼南夷 莫不率從(마침내 徐의 영토를 차지하고 해변의 나라에 이르니 회이와 蠻貊, 저 南夷들도 복종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선진 문헌에 보이는 동이 제 집단이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보이는 동이와는 그 문화계통이 전혀 다르다. 그러나 상고 동남의 부족이 서북으로, 서북의 부족이 동남으로, 또는 산동반도의 집단이 요동반도의 남단으로 각각 이동하는 예도 적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의 문화의 상호 영향이 확인되기도 한다. 특히 서주초 서북의 周族과(魯를 비롯한 姬姓 제국) 羌族이(齊를 비롯한 姜姓 제국) 대거 산동에 봉건되었고, 회이와 남이에 대한 정벌전

21) 이것을 근거로 춘추시대 쑤의 북방에서 활동한 驪戎도 고구려 貊의 一支로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렇다면 이 여음은 山西의 箕와 교섭하였을 것이며, 훗날 고구려가 箕子神을 모신 것도 바로 이 교섭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배제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22) 위만 조선에 남아 있던 준왕의 일족도 準王이 韓王을 칭하자 韓姓을 칭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오히려 준왕이 그 이전에도 한왕을 칭한 증거일 것이다.

쟁도 장기간 계속되었다. 따라서 동남의 淮夷와 南夷 지역에 서북 또는 북방의 戎과 貊이 부분적으로 잡거하게 되고, 예맥계의 지명도 남았을 것이다²³⁾. 김상기 박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徐戎은 예맥과 동계일 가능성도 있으며, 주몽설화와 서연왕의 설화가 비슷한 것도 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맥의 일부가 동남으로 이동하여 일시 세력을 떨쳤다는 것과 이 지역의 문화가 동북 예맥에 영향을 미친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6) 맺음말

한민족 형성 집단의 시조신화에는 곰과 호랑이의 토테미즘, 새 토테미즘과 난생신화, 태양신앙, 瓠生神話, 射日神話, 천손강림, 산악과 수목신앙, 천마와 거북신앙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었으며, 각 집단에 따라 이 요소들의 복합도 상이하였다. 이러한 신앙은 모두 동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유행하였던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신앙을 담지한 집단과 한민족 형성 집단들이 일정한 교섭을 가졌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인정되며, 한민족 문화의 원류를 이 집단의 문화와 관련하여 탐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신화적 발상을 가진 집단이 반드시 상호의 밀접한 교섭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동일한 계통의 신화를 공유한 집단이 반드시 동일한 문화권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또 동일한 문화권에 속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문화가 곧 동일한 것은 아니다. 문화에는 시간과 층차, 그리고 중심부와 주변부의 층차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殷과 예맥이 난생설화를 담지하였을지라도 난생신화의 유형과 변종도 다양할 뿐 아니라, 설혹 기본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신화를 공유하였을지라도 그 공유가 신석기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이라면, 또는 은대에 공유된 것이라도 은의 고도한 청동기 문화의 상층구조와 무관한 주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굳이 예맥의 문화적 원류를 은 문화에서 찾을 이유는

23) 예컨대 《좌전》에 보이는 牟婁(산동 諸縣 동북)·根牟(산동 沂水縣 남)·介(산동 高密縣 서) 등은 예맥계의 지명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지역의 '동'을 모두 예맥계로 보는 것은 금물이다. 또 산동에서 齊와 경쟁한 萊도 《逸周書》의 良夷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예맥계로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별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없으며 더 더욱 은 문화를 예맥의 문화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화와 민족도 역사적으로 형성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이 한민족과 관련된 신화와 토토텐신앙의 다양성을 비교 분석한 것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의 원류를 탐색하는 작업에는 그 집단이 거주, 활동한 구체적인 공간과 그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여기서 가장 큰 위험은 비슷한 발음이나 의미의 문자를 모두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그 범위를 무한히 확대시키는 것이다. 특히 漢字는 假借와 同音異寫도 많고 외국의 고유 명사를 의역하여 표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상을 절제하지 않으면 어떤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문자가 너무나 확대되어, 오히려 불신을 자초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문헌을 보수적으로 이해해도 은주시대 예맥족이 중국의 섬서·산서·하북의 북방은 물론 회수 유역에서 활동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북방에서 활동한 제 집단은 한민족 문화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겠지만, 회수 유역에서 활동한 맥족을 통하여 회수 유역의 문화가 한민족 문화에 영향을 준 것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또 주초 하북의 예맥 존재가 곧 그 부근이 고조선의 영역이란 의미도 아니며, 전국시대 ‘朝鮮의 像’을 은주시대까지 소급하는 것도 금물이다.

한민족의 문명적 발전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은 역시 중국 문명일 것이다. 기자조선은 바로 그 초기 중국 문명의 수용 내지 이식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장된 것이었다. 그러나 은말 주초 조선이란 국호 또는 지명이 존재하였는지도 의문이지만, 주초 대릉하 유역에 나타난 箕族의 一支도 은주 문명을 체계적으로 대거 이식하는 역할은 하지 못하였고, 이것은 역시 漢 4郡의 설치 이후에 속하는 것 같다. 그 결과 예맥족은 중국문명의 외각에서 또 다른 문명권에 참여하면서 발전하였다. 이것이 바로 홍산문화에서 하가점 상층문화에 이르는 요하 문화권이며, 이 중 특히 비파형동검, 미송리형 토기, 적석총은 예맥 문화라고 한다. 그러나 전한말 편찬된 揚雄의 《方言》은 각지의 방언을 보고하면서 “朝鮮洌水之間”의 언어를 소개함으로써 조선을 중국 방언권으로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燕代朝鮮洌水之間”, “燕之北鄙朝鮮洌水之間”, “燕之北郊朝鮮洌水之間”, “燕之外鄙朝鮮洌水之間”, “燕朝鮮洌水之間”, “北燕朝

鮮之間”, “燕之東北朝鮮冽水之間”, “北燕朝鮮冽水之間”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방언을 다수 소개하였다. 물론 이것은 연 또는 그 동북 외곽에서 청천강에 이르는 지역이 모두 동일한 언어권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연 문화가 이 지역에 상당히 확산되었거나 예맥족과 연의 밀접한 교섭을 반영한 것은 분명하며, 따라서 연을 통한 중원문화와 그 주변문화의 보급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헌을 통한 역사연구의 한계는 자명하다. 그것은 기록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록의 불충분, 누락, 망실은 차치하더라도 때로는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심지어는 창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문헌상으로 한민족 문화의 북방 계통을 추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으며, 남방 계통도 그 편린은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문헌만으로 그 시간과 공간을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면, 고고학에 기초하지 않은 신화와 전승의 분석은 시간과 공간의 학문인 역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더욱이 한민족 문화의 원류를 논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 예컨대 《삼국지》 위서 동이전 이전의 동아시아의 종족과 문화의 분포, 특히 삼한 이전 한반도 남부의 문화, 稻作을 시작 또는 전래한 집단과 고인돌 문화의 주인공, 등등의 문제는 고고학과 형질인류학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약간의 유물을 참고하였지만 기획자의 주문대로 주로 문헌의 검토에 始終할 수밖에 없었던 본고는 고고학 및 형질인류학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 글들과 함께 읽지 않으면 너무나 공소한 느낌을 줄 것이다. 마지막 부연하고 싶은 것은 한민족의 원류를 탐색하는 것은 특정 범위내에서 그 고유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문화를 계속 풍부하게 만드는데 직접 간접적으로 기여한 여러 집단의 문화를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한민족의 형성과 그 문화의 발전에 참여한 그 집단의 범위를 漢族을 비롯한 중국 내륙의 소수민족, 匈奴를 비롯한 북방의 여러 유목민족, 烏桓, 鮮卑, 肅慎, 挹婁, 靺鞨, 倭 정도로 일단 좁힘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을 추적하는 과제의 기초를 정립한 것에 불과하다.

〈李成珪〉